

2016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 류영철 책임연구원 -

연구진

책임 연구자	류영철	미래교육부
공동 연구자	전홍표	미래교육부

- 목 차 -

<요약>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2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 연구 고찰 3
- 2. 자유학기제 정책 및 교육활동 4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9
- 2. 연구 대상 10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5

IV. 연구 결과

- 1. 설문을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분석 17
- 2. 인터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분석 62

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75
- 2. 제언 79

* 참고문헌 81

* 부 록 83

- 표 목차 -

<표 Ⅲ-1> 자유학기제 문항 범주 및 내용 개발 기준	9
<표 Ⅲ-2> 인터뷰 질문내용 영역 구분	10
<표 Ⅲ-3> 교원의 설문 대상자 (총 715명)	11
<표 Ⅲ-4> 학부모의 설문 대상자 (총 532명)	13
<표 Ⅲ-5> 학생의 설문 대상자 (총 1756명)	14
<표 Ⅳ-1> 자유학기제 연수경험 유무	17
<표 Ⅳ-2> 자유학기제 연수의 종류	17
<표 Ⅳ-3> 연수의 도움 정도	18
<표 Ⅳ-4> 연수의 도움정도 기술통계량	18
<표 Ⅳ-5> 자유학기제 배경과 취지 기술통계량	18
<표 Ⅳ-6> 자유학기제 바람직한 시기	19
<표 Ⅳ-7>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의 장점	19
<표 Ⅳ-8> 자유학기제 편성 및 운영방법의 장점 기술통계량	20
<표 Ⅳ-9>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학생들에게 우려되는 점	20
<표 Ⅳ-10> 자유학기제 평가방법 중에 힘든 점	21
<표 Ⅳ-11> 바람직한 자유학기제 유형	21
<표 Ⅳ-12> 자유학기제 추가연수 시 필요한 유형	21
<표 Ⅳ-13> 자유학기제 교사의 역할	22
<표 Ⅳ-14> 자유학기제 예산지원 중단 시 필요성	22
<표 Ⅳ-15> 갖추어야 할 요건 기술통계량	23
<표 Ⅳ-16>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원 본인의 만족도	23
<표 Ⅳ-17> 평가과정 개발에서의 어려움	23
<표 Ⅳ-18> 자유학기제 시행 후 학생들의 달라진 점	24
<표 Ⅳ-19> 자유학기제 시행 후 학부모님들의 달라진 점	24
<표 Ⅳ-20> 자유학기제 시행 후 교원 본인의 달라진 점	24
<표 Ⅳ-21> 자유학기제 중장기 과제	25
<표 Ⅳ-22>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교원 만족도	25
<표 Ⅳ-23>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수업참여	26

<표 IV-24>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26
<표 IV-25>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운영	26
<표 IV-26>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학생역량)	27
<표 IV-27>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교사역량)	27
<표 IV-28>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	27
<표 IV-29>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생활 만족도	28
<표 IV-30> 기타 의견 종합	28
<표 IV-31> 학부모의 자유학기제 연수 경험 유무	31
<표 IV-32> 자유학기제 연수의 도움 정도	31
<표 IV-33> 자유학기제 이행 정도	32
<표 IV-34> 자유학기제 만족도	32
<표 IV-35> 자유학기제의 취지 기술통계량	32
<표 IV-36> 자유학기제 바람직한 시기	33
<표 IV-37> 자유학기제 시기 선택이유	33
<표 IV-38>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33
<표 IV-39>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이유 기술통계량	34
<표 IV-40> 만족도가 높은 활동	34
<표 IV-41> 교과수업을 통한 장점	35
<표 IV-42> 제도 시행 전 교과 수업의 우려 점	35
<표 IV-43> 시행 후 어려웠던 점 기술통계량	35
<표 IV-44> 학습 자료의 충분정도	36
<표 IV-45> 교과 활동의 만족도	36
<표 IV-46> 교과 흥미도	36
<표 IV-47> 수업 적응도	37
<표 IV-48> 진로 탐색 도움 정도	37
<표 IV-49> 실력향상 도움 정도	37
<표 IV-50> 평가의 객관도	38
<표 IV-51> 사교육 필요정도	38

<표 IV-52> 사교육 실시 유무	38
<표 IV-53> 사교육 종류	39
<표 IV-54> 시행 후 자녀의 달라진 점	39
<표 IV-55> 시행 후 생각이 달라진 점	39
<표 IV-56> 중장기 과제 기술통계량	40
<표 IV-57>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만족도	40
<표 IV-58>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41
<표 IV-59>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41
<표 IV-60>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	41
<표 IV-6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생활 행복감	42
<표 IV-6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	42
<표 IV-63> 기타 종합 의견	42
<표 IV-64> 자유학기제 사전교육 유무	45
<표 IV-65> 사전교육의 도움 정도	46
<표 IV-66> 제도의 이해 정도	46
<표 IV-67> 제도의 만족도	46
<표 IV-68> 자유학기제의 취지 기술통계량	47
<표 IV-69> 자유학기제의 바람직한 시기	47
<표 IV-70> 시기 선택의 이유	48
<표 IV-71>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48
<표 IV-72>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이유 기술통계량	48
<표 IV-73>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활동	49
<표 IV-74> 만족도가 높은 활동	49
<표 IV-75> 활동 실시 장소	49
<표 IV-76> 활동 횟수	50
<표 IV-77> 활동 장소 수	50
<표 IV-78> 교과수업을 통한 장점	51
<표 IV-79> 제도 시행 전 교과 수업의 우려 점 기술통계량	51

<표 IV-80> 시행 후 어려웠던 점 기술통계량	51
<표 IV-81> 자유학기제의 변화와 과제	52
<표 IV-82> 교과 활동의 만족도	52
<표 IV-83> 교과 흥미도	52
<표 IV-84> 수업 적응도	53
<표 IV-85> 활동의 적절도	53
<표 IV-86> 진로 탐색 도움 정도	53
<표 IV-87> 실력향상 도움 정도	54
<표 IV-88> 평가의 객관도	54
<표 IV-89> 사교육 필요정도	54
<표 IV-90> 사교육 실시 유무	55
<표 IV-91> 사교육 종류	55
<표 IV-92> 시행 후 달라진 점	55
<표 IV-93> 중장기 과제 기술통계량	56
<표 IV-94>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및 수업	56
<표 IV-95>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나의 수업참여	57
<표 IV-96>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57
<표 IV-97>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	57
<표 IV-98>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교생활 행복감	58
<표 IV-99>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	58
<표 IV-100> 기타 종합의견	59

<연구 요약>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필요성은 첫째, 자유학기제 시범기간(연구학교, 시범학교 등)을 거쳐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를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자유학기제 현황을 파악하여 살펴봄으로써 경남 지역의 진로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는 것이다.

둘째, 경남지역은 1학년 1학기는 3개 중학교만 운영하고, 나머지 중학교는 1학년 2학기에 실시하고 있어 편중이 심한 현황을 파악하여 진로 체험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진로 체험과 탐색, 진로직업 특강 전문가 등의 인프라가 다소 미흡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인프라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남지역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넷째, 일선 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나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통해 드러나는 경남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남 지역의 중학교에 실시하는 자유학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내용 도출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고찰

김진섭·문성배(2015)는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했는데,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교사 및 학부모들의 학력저하 염려가 상존한다. 또한 20년 이상 경력교사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나 평가과정 개발에는 어려움을

보인다. 지역사회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 평가방법의 모호함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황지연·유정애(2016)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교사 인식을 탐색했는데, 체육교사들의 수업시수 조정, 학교 밖 체험인프라 구축 등의 직무부담이 상당함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수업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는 발판의 역할과 교사 전문성 향상의 기회로 대두됨을 보였다.

김이경·민수빈(2015)는 제도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직무부담 분석을 했는데, 직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업무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했으며, 여교사, 부장교사 및 담임교사, 자유학기제 연수 유경험자 교사가 직무부담을 더 크게 인식함을 밝히고 있다.

홍후조·임유나·장소영(2013)은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제도 운영방안을 탐색했는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속고가 필요하고, 여건이 매우 미흡하며, 기초연구, 이해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밝히고 있다.

신철균·황은희·김은영(2015)는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는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또한 평가기록과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인력풀 지원과 체험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간의 연계방안, 자발적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제언하고 있다.

이병환·임영희·권민석(2015)는 의견조사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대해 탐색했는데, 운영시기는 2학년 1학기를 가장 선호했고, 진로교육이 운영중점이 되길 희망했으며, 과정중심의 수행평가를 선호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서운(2016)은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했는데,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의 실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어려움이 많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자유학기제도에 대해 정책의 인프라와 준비가 부족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수업실행, 평가에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제 현황에 대한 일반교과교사의 인식을 조사했을 뿐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다(에듀진 보도자료, 2015; 류영철, 2014). 그러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현장의 전반적인 인식을 통한 연구는 미진한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활용한 비교 분석과 자유학기제를 실질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인식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자유학기제 정책 및 교육활동

가. 현황과 사례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교육부, 2013, 2014).

자유학기제의 기본방향은 첫째, 자유학기에 집중적인 진로수업 및 체험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진로인식)-중학교(진로탐색)-고등학교(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의 활성화이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 대상 학기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구학교의 운영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한다. 넷째, 자유학기에 특정 기간이 집중되어 실시되는 중간·기말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기초적인 성취 수준 확인 방법 및 기준 등은 학교별로 마련한다. 다섯째, 자유학기를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활용한다(이지연, 2013).

자유학기제는 기본교과중심의 공통과정과 자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율과정의 운영체제 모형은 진로탐색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학생 선택형 프로그램 모형, 예·체능 중점 모형, 혼합형 모형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4). 이러한 모형 중 진로탐색모형은 참여하는 학생이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자기의 장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학습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택교과 중 「진로와 직업」을 자유학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연구학교에 우선 보급, 활용하는 것이다. 전일제 진로체험, 외부강사 초청강의 등을 통한 교내외의 진로체험을 하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직·간접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해 모든 시·도 교육청에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구축·지원하는 것이다(교육부, 2013). 진로탐색모형의 역할은 현재 중등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주요 업무와 상당부분이 겹친다(류영철, 2014; 장현진 외, 2014). 또한 진로탐색모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라고 할 수 있다(손취권, 2013; 류영철, 2014; 장현진 외, 2014). 다만, 새로이 신설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축·지원 업무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발표(2015. 12.28 경향신문

보도자료)하고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집중학기를 전후해 각 학교가 한 학기를 탐색학기나 연계학기로 정해 1년간 운영한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1학년 때 ‘1학기 집중학기-2학기 연계학기’나 ‘1학기 탐색학기-2학기 집중학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중학기엔 지필고사가 없고, 탐색·연계학기엔 기말고사만 치러 결론적으로 중학교 1년간 지필고사는 기말고사 한 차례만 치러지게 된다.

탐색·연계학기 때에는 교과 수업과 창의적체험(창체)활동 수업을 똑같이 하되 토의 토론, 실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진로탐색주간을 운영한다. 집중학기에는 오전에 교과·창체활동 수업을 받고 오후에 예술·체육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 집중학기 때 주당 10시간씩 170시간 이상의 체험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다. 집중학기 때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및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서술형으로 기재한다.

나. 자유학기 교육활동 특징

자유학기 교육활동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자율적 교육과정이란 의미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탄력성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 차원에서 학생 스스로 원하는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자율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오후의 자율과정에는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학교별 여건에 맞춰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화 하였다.

두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이다. 학습 방식의 변화는 교사 등 타인이 주입하는 교과서 지식의 암기와 수동적 학습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탐구하며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기초로 학생의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며 학생 참여형·활동형 수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평가 방법의 변화이다. 중간·기말고사 시험 등 지필식 총괄평가는 폐지하되 포트폴리오 평가 등 과정 중심적인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돕는다. 교과별로 핵심성취기준을 마련하여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를 파악하고, 평가의 결과는 수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서열화된 점수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과정을 살펴 학생의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고려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평가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진로체험 활동과 학생 선택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는 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회사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진로직업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내·외로 확대하고 진로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 한다(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다. 경남의 자유학기제 현황

1)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2016.03.01. 기준)

경남의 자유학기제 대상 총 학교는 268개, 학급 수는 1,137개, 학생 수는 31,581명이다. 자유학기제를 희망하는 학기는 3개 학교가 1학기를, 265개 학교가 2학기를 선호했다. 자유학기제 희망학기 비율은 1학기가 1.1%, 2학기가 98.9%로 대부분의 중학교가 2학기에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번	지역	전체			대상		희망학기(학교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학기	2학기
1	창원	64	1026	31677	344	10005	-	64
2	진주	21	379	10530	126	3699	-	21
3	통영	12	139	3932	46	1233	-	12
4	사천	11	113	2855	38	1009	-	11
5	김해	32	595	18053	205	6108	1	31
6	밀양	12	95	2534	31	776	-	12
7	거제	19	277	6523	92	2626	-	19
8	양산	14	291	7344	98	2886	-	14
9	의령	5	24	501	8	144	-	5
10	함안	9	74	1817	26	588	-	9
11	창녕	10	57	1286	19	388	-	10
12	고성	8	49	896	16	352	-	8
13	남해	11	48	899	17	285	-	11
14	하동	9	43	904	13	293	-	9
15	산청	7	35	634	11	192	-	7
16	함양	6	38	875	12	262	-	6
17	거창	10	68	1625	21	497	1	8
18	합천	9	46	860	14	238	1	8
합계		269	3,397	93,745	1,137	31,581	3	265

2) ‘꿈길1)’ 진로체험처 등록 현황(2016.09.07.기준)

꿈길의 진로체험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197개 진로체험처 중에서 공공기관/공기업의 비율이 827개로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개인사업장이 569개로 25.9%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체험처가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크고, 골고루 편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은 공공기관/공기업에 진로체험처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번	교육지원청	공공기관/공기업	사기업	청소년/시민단체	학교/대학교	개인사업장	소계
1	창원	100	35	19	58	62	274
2	진주	79	41	21	29	31	201
3	통영	65	21	15	12	56	169
4	사천	31	10	13	26	34	114
5	김해	85	32	19	63	105	304
6	밀양	36	18	15	5	37	111
7	거제	118	31	0	1	0	150
8	양산	75	20	22	52	38	207
9	의령	26	1	11	1	15	54
10	함안	37	40	21	4	76	178
11	창녕	19	8	2	2	17	48
12	고성	27	20	23	1	8	79
13	남해	12	3	2	0	3	20
14	하동	15	10	5	0	8	38
15	산청	17	3	1	0	2	23
16	함양	36	12	8	3	26	85
17	거창	31	13	5	7	36	92
18	합천	18	12	4	1	15	50
합계		827	330	206	265	569	2,197

1)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매칭시스템 전산망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양적 연구) 설문 문항 범주 및 내용 개발

자유학기제 설문 문항 범주 및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고찰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 인식관련 선행 연구물(홍후조·임유나·장소영, 2013; 신철균·황은희·김은영, 2015; 이병환·임영희·권민석, 2015)의 내용과 연구도구인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했고, 그 수정본을 본 연구자가 검토를 통해 문항범주와 내용을 개발했다. 설문 문항의 검토 기준은 Grant & Davis(1997)의 내용타당도 준거인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세 가지 준거를 준용하여 개발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용은 37개 문항, 교원용은 29개 문항, 학부모용은 33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나. (질적 연구) 집단 인터뷰 문항 범주 및 내용 개발

질적 연구의 집단 인터뷰 질문 영역과 질문 내용 구성을 위해 연구자는 양적연구인 폐쇄형 설문을 참고하여 그 기본 요소를 골자로 하여 구성했다. 집단 인터뷰를 위한 개방형 설문은 半구조화된 방법을 기본으로 활용하여 부가되는 질문은 연관하여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집단 인터뷰 질문을 위한 구체적인 4가지 영역은 ① 진로 체험 및 특강 ② 수업방법 개선 ③ 교원 인식 개선 및 복지 ④ 제도에 대한 과제로 구분했다.

〈표〉 집단 인터뷰 질문내용 영역 구분

순	영역	질문내용
1	진로 체험 및 진로 특강	자유학기제에 대해 사전 연수를 받으셨나요? 자유학기제를 1학기에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정체성이 형성되나요? 진로 특강은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2	평가와 수업 방법 개선	수업 방법은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수업 평가방법은 어떠한가요? 교육과정은 어떻게 재구성하나요? 자유학기제로 인한 변화(수업전문성, 동료교사, 학생과의 관계, 교사로서 의 정체성 등)가 있나요?
3	교원 인식 개선 및 복지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진로 인식은 어떠한가요? 진로 체험과 활동, 특강의 업무는 누가 어떻게 하고 분담하고 있나요? 자유학기제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나요? 자유학기제 사후 연계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4	제도에 대한 과제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고교와 대학과의 평가연계가 필요한가요? 꿈길은 어떻게 사용되고, 미흡한 점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 자유학기제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2. 연구 대상

가. (양적 연구) 설문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 총 인원은 3,889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은 771명, 학생은 2,140명, 학부모는 978명이었다. 설문 총 인원의 유효한 설문응답자는 3,003명이었다. 유효 설문 응답률은 77.2%이었다. 세부적으로 교원은 715명, 학부모는 532명, 학생은 1,756명이 설문에 유효하게 응답했다.

교원의 설문 대상자는 연령별로 20대는 9.5%, 30대는 25.4%, 40대는 25.6%, 50대는 38.6%, 60대 이상은 0.9%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36.4%, 여자가 63.6%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미만이 18.9%, 10년 미만이 10.8%, 15년 미만이 14.0%, 20년 미만이 8.7%, 20년 이상은 47.5%로 나타났다. 학교구분은 남자 중학교가 18.0%, 여자중학교가 13.9%, 남부공학중학교는 68.1%로 나타났다. 지역구분은 도시가 45.8%, 읍면이 54.2%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설문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2.4%, 여자가 83.8%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은 남자가 48.3%, 여자가 51.7%로 나타났다. 자녀학교는 남자 중학교가 15.8%, 여자중학교가 24.6%, 남녀공학중학교가 59.2%로 나타났다. 지역은 도시가 46.2%, 읍면이 53.6%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시기는 1학기가 26.3%, 2학기가 73.1%로 나타났다.

학생의 설문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1.7%, 여자가 58.3%로 나타났다. 학교는 남자 중학교가 12.1%, 여자중학교가 31.7%, 남녀공학중학교가 56.2%로 나타났다. 지역은 도시가 58.2%, 읍면이 41.8%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시기는 1학기가 13.9%, 2학기는 86.1%로 나타났다.

나. (질적 연구) 초점 집단 인터뷰(FGI)

집단 인터뷰는 2회를 진행했으며, 총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김해 진영중학교의 관리자 2분, 진로전담부장 선생님, 1학년 부장선, 연구부장 선생님, 교육부장 선생님과 경남 지역 중학교 진로전담 부장선생님 7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양적 연구) 설문 수집 및 분석 방법

1) 설문 수집

설문 수집은 온라인(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설문전문 프로그램인「서베이 몽키」를 활용하여 설문을 배포 및 수집했다. 정해진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여 답변하고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수집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설문 구성은 객관식 선택, 순위 응답 및 복수 응답, 기타 주관식 의견 등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대상은 경남 도내 전 중학교 중 자유학기제를 연구학교, 시범학교, 2016년 1학기에 경험한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기간은 2016. 7.11.(월) ~ 7.20(수), 10일간 실시했다. 설문 인원의 총 유효한 설문응답자는 3,003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은 715명, 학부모는 532명, 학생은 1,756명이 설문에 유효하게 응답했다.

2) 설문 분석 방법

분석의 도구는 IBM SPSS Statistics 20.0을 활용했고, 유의수준은 0.05으로 하여 판단·분석 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의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여 기술했다.

나. (질적 연구) 개별 및 초점집단인터뷰

인터뷰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본의 추출은 경남지역에서 2016학년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3곳(김해진영중학교, 거창여자중학교, 합천대병중학교)의 학교 중 1학년이 8개 학급으로 남녀학생이 총 260명으로 가장 많은 김해 진영중학교 진로전담부장 선생님과 경남지역 7명의 진로전담부장 선생님들 해서 모두 8명을 인터뷰 학교와 인터뷰어로 선정했다.

자료의 수집은 김해 진영중학교 교사와 관리자에 사전에 전화 통화를 통해 인터뷰허락을 구한 후 전자문서로 공문을 보냈다. 그 후 2016. 09.20.(화)에 직접 김해 진영 중학교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대상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을 모두 녹취했다. 또한 진로전담부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도 2016.12.13.(화)에 실시했다. 인터뷰는 ‘열기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 3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질의 내용은 사전에 4개 영역별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半구조화 설문의 방법을 통해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녹취한 모든 내용은 전사의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전사한 모든 내용을 핵심 키워드별로 코딩하고, 코딩한 내용을 핵심 주제별로 유목화(범주화) 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및 해석했다.

Ⅳ. 논의 및 제언

1. 논 의

가. 진로 체험 및 특강

첫째, 진로 체험 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효율적인 진로탐색과 체험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팀을 꾸려 체험처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지만, 학교의 인력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체험을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단시간, 단시일 내에 실시하는 경향이 커서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1학년 1학기에 실시한 학교의 학생들은 아직 진로정체성이 미형성 되고 진로역량이 부족하여 진로체험과 탐색을 했기는 했으나 본인이 원하는 진로체험과 탐색을 했다고보다는 단체로 진행한 체험이나 놀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일부는 중학교 1학년에서의 진로 결과와 그로 인한 진로탐색 활동에 대해 너무 이르다는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형 설문에서는 1학년 2학기가 가장 바람직한 시기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철균(2014)연구와도 일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진로 체험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적절한 시기 조정과 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신재한·권민석(2015)의 연구에서는 교원은 2학년 1학기, 학생은 1학년 2학기, 학부모는 2학년 1학기를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과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1학년 2학기 위주가 아니라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진로 체험처의 몰림 현상에 대한 해소와 개별 학생들의 진로 정체성 형성 및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지속가능한 진로 체험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 경남에서 공공기관/공기업이 가장 높은 진로 체험처 등록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진로 체험이라기보다는 ‘견학’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실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기관은 진로 체험과 재료비 명목으로 학생 수준에 부담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진로체험에 부담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눈높이를 맞추는 진로 특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 특강은 대부분 재능기부를 통해 충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능기부를 하는 강사들은 거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진로 강사는 섭외가 쉬운 학부모인 경우도 있어 강의를 하는 스킬이나 테크닉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쉽게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젊은’ 강사 인력풀 구성과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평가 모형 개발 및 사후 추수지도 모형 개발

첫째, 자유학기제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평가는 자유학기제도 도입으로 인해 수행평가로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자유학기제 평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수강과 미수강으로만 표기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무임승차 학생이 발생하는 데 이런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이후인 중학교 2학년과 3년을 직접적으로 수행평가가 성적이 반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문제출제, 평가와 채점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객관적인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교과별 평가사례의 개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평가 자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협력기반 수행평가, 과정중심 성장평가 모형, 평가 우수 사례를 연구 및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과 신선함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위해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좀 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핵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안에 대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구성을 위해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수업 등을 자유학기제에 맞게 평가가 없는 새로운 수업방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신선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유학기제 실시 후 진로체험 결과와 변화, 성장, 수업방법 개선 등의 과정들이 다음 학기나 학년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역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직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예전보다 꿈, 비전, 적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인의 진로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유학기제 이후 학생 개개인의 진로역량을 더욱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학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진로 체험과 활동이 연속되고, 또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추수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형 자유학기제 모형(신철균·김진숙·정광순, 2013)과 맥락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교원 인식 개선과 복지

첫째, 모든 교원의 진로인식의 무장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진로전담교사가 모든 진로체험과 활동, 진로 특강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진로체험을 위해 실제로 동행하는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진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진로인식의 성숙이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의 꿈, 끼, 비전, 적성, 흥미에 대해 생각하고 자극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관리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므로 관리자에 대한 직무 연수를 체험 연수 위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진로 체험과 탐색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진로전담부장(교사)의 업무 과부하와 소진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체험처 섭외, 진로직업 특강을 해 줄 전문가 섭외, 그 외 진로업무 기획, 총괄 등의 업무에 특히 부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대적으로 큰 학교에서는 학년부, 연구부, 교육과정부 등과 일을 협의하거나 분배해서 하고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모든 부서 및 교사들에게 업무상 만족도를 높이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 다수에서도 진로업무 및 자유학기제 보조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전담교사 및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소진현상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유관기관의 구체적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철균·김진숙·정광순(2013)의 ‘풀뿌리 문제의식의 상향화’, ‘자유학기제 핵심팀의 구성과 양성’과도 같은 맥락적 고민으로 여겨진다.

라. 제도에 대한 과제

첫째, 학습결손 우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인해 이러한 학력과 학습결손을 우려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제 이후 학습 결손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에는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만 시험을 안 보는 것뿐이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수업을 오전에 진행하고 있고 거기예다가 자유학기제만의 수업이 더해져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 같은 도구 과목은 이전에 배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다음 배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배제하고 시험에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주요 과목인

‘국영수사과’를 대상으로 내신에 반영되는 기말고사는 치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교육청, 교육 지원청, 개별 학교가 모여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대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급학교 평가로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 체험이나 활동 등은 수행평가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교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 진학률이 국가적으로 90%에 육박하는 현실을 본다면 중학교도 대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성격이 짙을 수 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학교의 활동과 평가도 다분히 대입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의 실시하는 진로 체험과 전공활동 등은 그 대학을 입학할 때 직·간접적으로 평가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꿈길’ 사이트가 있으나 실질적인 진로체험을 위한 기관이 제한적이며, 직업특강을 해 줄 전문가 섭외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초기이다 보니 진로 체험처가 많이는 등록되고 있으나 진로 체험처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진로 체험처에 가서는 원하는 체험이 되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 체험처 평가에 대한 공유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체험처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 특강이 많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진로 특강 강사를 개별 학교마다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꿈길의 보완 기능으로 진로 특강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꿈길에서의 통합이 쉽지 않다면 우선 교육청에서 지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로 특강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꿈길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꿈길에 많은 기관, 업체, 대학 등이 등록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체험 가능한 인원 수 등이 제때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실제 진로체험과 맞지 않아 결과 보고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 업체, 대학 등이 적시에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유학기제 예산지원이 꿈길 경우에 대한 대비와 교사연구회 결과물에 대한 확산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 제도의 활성화, 연착륙 등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구결과의 파급, 전이효과, 공유, 확산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예산이 교육부에서 차후 지급되지 않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자유학기제의 진로 체험 또는 제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의문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소외지역인 읍면지역은 진로 체험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미비하므로 버스 대절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학교에서 버스 대절을 할 경우 버스 대절비용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므로 버스 대절비용은 교육청이나 교육 지원청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학교들의 일정에 맞게 대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행정사항에 대한 경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적으로 보고할 사항, 과다한 안전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결과 보고서 제출, 연계학기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많은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고 연계학기 신청도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전면 실시되면서 오히려 학교 및 학생의 특성화를 상실하고 평준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정 업무로 인해 자유학기제가 ‘고정적 틀’에 갇혀 ‘타율학기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학기제로 인한 효과도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 실시 한 학기 전 진로 정체성 형성 교육과 자유학기제를 마치고 그 다음 학기와 학년으로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방안(가칭 ‘경남형 자유학기제’: [탐색-집중-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서울교육청은 서울형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Post-자유학기제 중2-3학년을 대상으로 다수의 교육과정 동아리 운영, 연간 34차시의 동아리 시간 운영, 연 1회이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남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경남교육청과 직접적으로 지역 대학교와의 MOU를 체결하여 대학교의 훌륭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1회성의 진로 체험이 아니라 장기간의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대학에서의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꿈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꿈길의 신청은 개별적인 중학교가 대학하고 직접 연결해서 처리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학생 개별적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모든 학교가 대학의 양질의 진로 및 전공체험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지역 대학교와의 협약과 연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역대학교의 지역 인재 조기 발굴에의 도움 및 장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개별 학생들의 진로역량 신장, 대학의 지역에 대한 봉사기여,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에 전공체험 기회 부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이 교육부의 정책평가지표에도 반영되어 관련 예산을 재 지원받는 ‘선순환’구조로도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진로 직업 특강을 해 줄 전문가 인력풀 구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서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은 구성의 양과 질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직업능력개발원이나 ‘국가진로체험지원센터(가칭)’ 등을 통한 전국적인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청 중심의 실질적인 전문 인력풀의 구축과 갱신을 통해 이러한 국가기관에 최신의 인력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진로직업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러한 활용을 통해 원활한 학교 지원 및 진로전담교사의 섭외 업무 감소가 가능하여 업무의 피로 정도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경남형 진로체험 마을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남지역에서 창원시 진해구 진해청소년수련관이 중심이 돼서 덕산 마을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체험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산 YMCA가 중심이 돼서 마산 합포구 지역 마을학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 교육청도 2017년부터 김해 내외동을 중심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의 모든 지역이 이러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장의 제공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진로체험을 위한 마을 네트워크의 자발적 구성, 확산 및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한 행복교육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공포되었고,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진로교육법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9조(진로전담교사)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둔다.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교년·학기제)에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 학교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법제처, 2015)를 들 수 있다.

진로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연계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진로진학상담교사제의 도입, 학생부종합전형 실시와 확대, 중학교와 고교의 절대평가제 도입, 진로교육법의 제정,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의 하나로서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동안 자유롭게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규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고 있다(교육부, 2013, 2014).

자유학기제의 운영체제는 진로탐색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학생 선택형 프로그램 모형, 예·체능 중점 모형, 혼합형 모형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4). 운영체제 모형 중 특히, 진로탐색모형은 자유학기제의 정체성을 좌우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신철균, 2014).

이러한 진로탐색모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라고 할 수 있다(손휘권, 2013; 류영철, 2014; 장현진 외, 2014). 그러나 일부 지역의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부담마저 진로교사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워져 업무량 과중은 한계상황을 넘어서고 있다는 조짐²⁾마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문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창용 책임연구원과 장현진 연구원 등이 2014년 7월에 조사한 2014년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따라서 진로패와 진로탐색의 운영 내실화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인식의 선행연구는 중학교 일반교과 교사(주로 사회, 체육 등)만을 대상으로 현황위주 분석이 대부분(김진섭·문성배, 2015; 황지연·유정애, 2016; 김이경·민수빈, 2015; 홍후조·임유나·장소영, 2013; 신철균·황은희·김은영, 2015; 이병환·임영희·권민석, 2015; 지서운, 2016)이다.

그러므로 진로전담교사의 업무 부담 등에 현황을 분석하고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경남지역 중학교에서의 진로 체험 및 활동, 수업방법 개선, 교원 인식개선 및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알아봄으로써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 연구를 실시했다.

2. 연구 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첫째, 설문을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인터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 2)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중학교 진로교사 3기 19명 가운데 6명이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전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사태는 자유학기제에 따른 지원인력을 증가시키지 않은 채 이 업무를 그나마 잘 아는 진로교사들한테 집중적으로 맡기다 보니 벌어진 사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원까지 할 정도의 문제는 이 북부교육지원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이라는 것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예듀진 2015.06.15. 보도자료).

- 3)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과한 후 불만족하는 이유(%)

구분	설문 참가	적성이 맞지 않음	업무가 과다함	업무에 따른 보상부족	동료및 학교지원부족
전체	486명	12.1	61.3	9.7	16.9

(출처: 송창용외(2014).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고찰

자유학기제의 연구도구인 설문 문항 범주와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김진섭·문성배(2015)는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했는데,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교사 및 학부모들의 학력저하 염려가 상존한다. 또한 20년 이상 경력교사는 매우 만족하고 있으나 평가과정 개발에는 어려움을 보인다. 지역사회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 평가방법의 모호함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황지연·유정애(2016)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교사 인식을 탐색했는데, 체육교사들의 수업시수 조정, 학교 밖 체험인프라 구축 등의 직무부담이 상당함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수업의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는 발판의 역할과 교사 전문성 향상의 기회로 대두됨을 보였다.

김이경·민수빈(2015)는 제도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직무부담 분석을 했는데, 직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업무를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했으며, 여교사, 부장교사 및 담임교사, 자유학기제 연수 유경험자 교사가 직무부담을 더 크게 인식함을 밝히고 있다.

홍후조·임유나·장소영(2013)은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제도 운영방안을 탐색했는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적용하는 것은 숙고가 필요하고, 여건이 매우 미흡하며, 기초연구, 이해 및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밝히고 있다.

신철균·황은희·김은영(2015)는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는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또한 평가기록과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인력풀 지원과 체험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간의 연계방안, 자발적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제언하고 있다.

이병환·임영희·권민석(2015)는 의견조사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대해 탐색했는데, 운영시기는 2학년 1학기를 가장 선호했고, 진로교육이 운영중점이 되길 희망했으며, 과정중심의 수행평가를 선호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서운(2016)은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했는데,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의 실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어려움이 많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자유학기제도에 대해 정책의 인프라와 준비가 부족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 수업실행, 평가에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제 현황에 대한 일반교과교사의 인식을 조사했을 뿐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다(에듀진 보도자료, 2015; 류영철, 2014). 그러나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현장의 전반적인 인식을 통한 연구는 미진한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활용한 비교 분석과 자유학기제를 실질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인식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자유학기제 정책 및 교육활동

가. 자유학기제의 정책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교육부, 2013, 2014).

자유학기제의 기본방향은 첫째, 자유학기에 집중적인 진로수업 및 체험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진로인식) - 중학교(진로탐색) - 고등학교(진로설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의 활성화이다. 둘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 대상 학기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구학교의 운영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한다. 넷째, 자유학기에 특정 기간이 집중되어 실시되는 중간·기말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기초적인 성취 수준 확인 방법 및 기준 등은 학교별로 마련한다. 다섯째, 자유학기를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식 등 학교 교육방법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로 활용한다(이지연, 2013).

자유학기제는 기본교과중심의 공통과정과 자율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자율과정의 운영체제 모형은 진로탐색모형,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학생 선택형 프로그램 모형, 예·체능 중점 모형, 혼합형 모형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4).

이러한 모형 중 진로탐색모형은 참여하는 학생이 자기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자기의 장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로학습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택교과 중 「진로와 직업」을 자유학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을 연구학교에 우선 보급, 활용하는 것이다. 전일제 진로체험, 외부강사 초청강의 등을 통한 교내외의 진로체험을 하며, 이것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직·간접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해 모든 시·도 교육청에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구축·지원하는 것이다(교육부, 2013). 진로탐색모형의 역할은 현재 중등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주요 업무와 상당부분이 겹친다(류영철, 2014; 장현진 외, 2014). 또한 진로탐색모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라고 할 수 있다(손취권, 2013; 류영철, 2014; 장현진 외, 2014). 다만, 새로이 신설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구축·지원 업무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형 자유학기제를 발표(2015. 12.28 경향신문 보도자료)하고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집중학기를 전후해 각 학교가 한 학기를 탐색학기나 연계학기로 정해 1년간 운영한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1학년 때 ‘1학기 집중학기-2학기 연계학기’나 ‘1학기 탐색학기-2학기 집중학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중학기엔 지필고사가 없고, 탐색·연계학기엔 기말고사만 치러 결론적으로 중학교 1년간 지필고사는 기말고사 한 차례만 치러지게 된다.

탐색·연계학기 때에는 교과 수업과 창의적체험(창체)활동 수업을 똑같이 하되 토의 토론, 실험 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진로탐색주간을 운영한다. 집중학기에는 오전에 교과·창체활동 수업을 받고 오후에 예술·체육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 집중학기 때 주당 10시간씩 170시간 이상의 체험활동 중심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다. 집중학기 때는 과정 중심 수행평가 및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서술형으로 기재한다.

나. 자유학기 교육활동 특징

자유학기 교육활동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자율적 교육과정이란 의미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탄력성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 차원에서 학생 스스로 원하는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자율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오후의 자율과정에는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학교별 여건에 맞춰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화 하였다.

두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이다. 학습 방식의 변화는 교사 등 타인이 주입하는 교과서 지식의 암기와 수동적 학습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탐구하며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기초로 학생의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며 학생 참여형·활동형 수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평가 방법의 변화이다. 중간·기말고사 시험 등 지필식 총괄평가는 폐지하되 포트폴리오 평가 등 과정 중심적인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돕는다. 교과별로 핵심성취기준을 마련하여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를 파악하고, 평가의 결과는 수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서열화된 점수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과정을 살펴 학생의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고려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평가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진로체험 활동과 학생 선택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는 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회사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진로직업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내·외로 확대하고 진로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 한다(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다. 경남의 현황

1)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2016.03.01. 기준)

경남의 자유학기제 대상 총 학교는 268개, 학급 수는 1,137개, 학생 수는 31,581명이다. 자유학기제를 희망하는 학기는 3개 학교가 1학기를, 265개 학교가 2학기를 선호했다. 자유학기제 희망학기 비율은 1학기가 1.1%, 2학기가 98.9%로 대부분의 중학교가 2학기에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번	지역	전체			대상		희망학기(학교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학기	2학기
1	창원	64	1026	31677	344	10005	-	64
2	진주	21	379	10530	126	3699	-	21
3	통영	12	139	3932	46	1233	-	12
4	사천	11	113	2855	38	1009	-	11
5	김해	32	595	18053	205	6108	1	31
6	밀양	12	95	2534	31	776	-	12
7	거제	19	277	6523	92	2626	-	19
8	양산	14	291	7344	98	2886	-	14
9	의령	5	24	501	8	144	-	5
10	함안	9	74	1817	26	588	-	9
11	창녕	10	57	1286	19	388	-	10
12	고성	8	49	896	16	352	-	8
13	남해	11	48	899	17	285	-	11
14	하동	9	43	904	13	293	-	9
15	산청	7	35	634	11	192	-	7
16	함양	6	38	875	12	262	-	6
17	거창	10	68	1625	21	497	1	8
18	합천	9	46	860	14	238	1	8
합계		269	3,397	93,745	1,137	31,581	3	265

2) ‘꿈길4’ 진로체험처 등록 현황(2016.09.07.기준)

꿈길의 진로체험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197개 진로체험처 중에서 공공기관/공기업의 비율이 827개로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개인사업장이 569개로 25.9%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체험처가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크고, 골고루 편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직은 공공기관/공기업에 진로체험처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 번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청소년/ 시민단체	학교/대학교	개인사업 장	소계
1	창원	100	35	19	58	62	274
2	진주	79	41	21	29	31	201
3	통영	65	21	15	12	56	169
4	사천	31	10	13	26	34	114
5	김해	85	32	19	63	105	304
6	밀양	36	18	15	5	37	111
7	거제	118	31	0	1	0	150
8	양산	75	20	22	52	38	207
9	의령	26	1	11	1	15	54
10	함안	37	40	21	4	76	178
11	창녕	19	8	2	2	17	48
12	고성	27	20	23	1	8	79
13	남해	12	3	2	0	3	20
14	하동	15	10	5	0	8	38
15	산청	17	3	1	0	2	23
16	함양	36	12	8	3	26	85
17	거창	31	13	5	7	36	92
18	합천	18	12	4	1	15	50
합계		827	330	206	265	569	2,197

4) 교육부가 자유학기제를 위해 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매칭시스템 전산망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양적연구) 설문 문항 범주 및 내용 개발

자유학기제 설문 문항 범주 및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 인식관련 선행 연구물(홍후조·임유나·장소영, 2013; 신철균, 황은희·김은영, 2015; 이병환·임영희·권민석, 2015)의 내용과 연구도구인 설문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했고, 그 수정본을 본 연구자가 검토를 통해 문항범주와 내용을 개발했다. 설문 문항의 검토 기준은 Grant & Davis(1997)의 내용타당도 준거인 대표성, 명확성, 포괄성의 세 가지 준거를 준용하여 개발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용은 37개 문항, 교원용은 29개 문항, 학부모용은 33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표 1〉 자유학기제 문항 범주 및 내용 개발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성적)
대표성	문항 범주와 각 문항 내용은 자유학기제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가?
명확성	문항 범주와 각 문항내용의 내용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포괄성	제시된 문항내용들은 해당 범주의 전체내용을 충분하게 포괄하고 있는가?

나. (질적연구) 집단 인터뷰 문항 범주 및 내용 개발

질적 연구의 질문 영역과 질문 내용 구성을 위해 연구자는 폐쇄형 설문을 참고하여 그 기본 요소를 골자로 하여 구성했다. 개방형 설문은 반구조화된 방법을 활용하여 부가되는 질문은 연관하여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을 위한 구체적인 4가지 영역은 ① 진로 체험 및 특강 ② 수업방법 개선 ③ 교원 인식 개선 및 복지 ④ 제도에 대한 과제로 구분했다.

<표 Ⅲ-2> 인터뷰 질문내용 영역 구분

순	영역	질문내용
1	진로 체험 및 진로 특강	자유학기제에 대해 사전 연수를 받으셨나요? 자유학기제를 1학기에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통해 진로정체성이 형성되나요? 진로 특강은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2	평가와 수업 방법 개선	수업 방법은 어떻게 다르게 진행되나요? 수업 평가방법은 어떠한가요? 교육과정은 어떻게 재구성하나요? 자유학기제로 인한 변화(수업전문성, 동료교사, 학생과의 관계, 교사로서의 정체성 등)가 있나요?
3	교원 인식 개선 및 복지	1학년 담임 선생님과 관리자의 진로 인식은 어떠한가요? 진로 체험과 활동, 특강의 업무는 누가 어떻게 하고 분담하고 있나요? 자유학기제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나요? 자유학기제 사후 연계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4	제도에 대한 과제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고교와 대학과의 평가연계가 필요한가요? 꿈길은 어떻게 사용되고, 미흡한 점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 자유학기제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2. 연구 대상

가. (양적 연구) 설문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 총 인원은 3,889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은 771명, 학생은 2,140명, 학부모는 978명이었다. 설문 총 인원의 유효한 설문응답자는 3,003명이었다. 유효 설문 응답률은 77.2%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은 715명, 학부모는 532명, 학생은 1,756명이 설문에 유효하게 응답했다. 구체적인 유효 응답률은 교원은 92.7%, 학부모는 54.4%, 학생은 82.1%로 나타났다.

교원의 설문 대상자는 연령별로 20대는 9.5%, 30대는 25.4%, 40대는 25.6%, 50대는 38.6%, 60대 이상은 0.9%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36.4%, 여자가 63.6%로 나타났다. 경력은 5년 미만이 18.9%, 10년 미만이 10.8%, 15년 미만이 14.0%, 20년 미만이 8.7%, 20년 이상은 47.5%로 나타났다. 학교구분은 남자 중학교가 18.0%, 여자중학교가 13.9%, 남부공학중학교는 68.1%로 나타났다. 지역구분은 도시가 45.8%, 읍면이 54.2%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 17.4%, 수학 14.8%, 과학 14.4%, 영어

11.6%, 진로 1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설문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2.4%, 여자가 83.8%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은 남자가 48.3%, 여자가 51.7%로 나타났다. 자녀학교는 남자 중학교가 15.8%, 여자중학교가 24.6%, 남녀공학중학교가 59.2%로 나타났다. 지역은 도시가 46.2%, 읍면이 53.6%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시기는 1학기가 26.3%, 2학기가 73.1%로 나타났다.

학생의 설문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1.7%, 여자가 58.3%로 나타났다. 학교는 남자 중학교가 12.1%, 여자중학교가 31.7%, 남녀공학중학교가 56.2%로 나타났다. 지역은 도시가 58.2%, 읍면이 41.8%로 나타났다. 2016년 실시시기는 1학기가 13.9%, 2학기는 86.1%로 나타났다.

<표 Ⅲ-3> 교원의 설문 대상자 (총 715명)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50	9.5
	30대	134	25.4
	40대	135	25.6
	50대	204	38.6
	60대 이상	5	.9
	결측값	187	-
성별	남자	192	36.4
	여자	336	63.6
	결측값	187	-
경력	5년 미만	100	18.9
	5년 이상~10년 미만	57	10.8
	10년이상~15년미만	74	14.0
	15년 이상~20년 미만	46	8.7
	20년 이상	251	47.5
	결측값	187	-
학교구분	남자 중학교	95	18.0
	여자중학교	73	13.9
	남녀공학 중학교	359	68.1
	결측값	188	-
교과	국어	87	17.4
	영어	58	11.6
	수학	74	14.8
	사회(역사 포함)	42	8.4
	과학	72	14.4
	기술·가정	46	9.2
	체육	31	6.2

	음악	16	3.2
	진로	52	10.4
	도덕	14	2.8
	미술	26	3.6
	기타	9	1.8
	결측값	188	-
직위	교장	13	2.5
	교감	14	2.7
	수석교사	3	.6
	부장교사	134	25.4
	담임교사	213	40.3
	전담교사	141	26.7
	기타	10	2.0
	결측값	187	-
지역	도시(동)	231	45.8
	읍면	273	54.2
	결측값	211	-
실시시기	2016년 실시	69	13.0
	2015년 실시	365	68.9
	2014년 실시	96	18.1
	결측값	185	-
2016 실시시기	1학기	53	10.0
	2학기	477	90.0
	결측값	185	-
지도학년	1학년	266	50.2
	2학년	69	13.0
	3학년	76	14.3
	교과 전담	60	11.3
	관리자	22	4.2
	기타	37	7.0
	결측값	185	-
학급 수	10학급 이하	259	48.9
	11-20학급 이하	164	30.9
	21-30학급 이하	93	17.5
	31학급 이상	14	2.6
	결측값	185	-
재직학교	행복(맞이)학교	25	4.7
	두드림학교	56	10.6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35	6.6
	일반학교	404	76.2
	기타	10	1.9
	결측값	185	-

<표 Ⅲ-4> 학부모의 설문 대상자 (총 532명)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부모 성별	남자	66	12.4
	여자	446	83.8
	결측	20	3.8
성별	남자	257	48.3
	여자	275	51.7
	합계	532	100.0
자녀 학교	남자 중학교	84	15.8
	여자중학교	131	24.6
	남녀공학 중학교	315	59.2
	기타	2	.4
자녀 학년	1학년	145	27.3
	2학년	327	61.5
	3학년	58	10.9
	기타	2	.4
	합계	532	100.0
지역	도시(동)	246	46.2
	읍면	285	53.6
	결측값	1	.2
실시시기	2016년 실시	139	26.1
	2015년 실시	334	62.8
	2014년 실시	57	10.7
	기타	2	.4
2016 실시시기	1학기	140	26.3
	2학기	389	73.1
	결측값	3	.6

<표 Ⅲ-5> 학생의 설문 대상자 (총 1,756명)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732	41.7
	여자	1024	58.3
	합계	1756	100.0
학교	남자 중학교	213	12.1
	여자중학교	557	31.7
	남녀공학 중학교	986	56.2
	합계	1756	100.0
지역	도시(동)	1022	58.2
	읍면	734	41.8
	결측값	1756	100.0
실시시기	2016년 실시	284	16.2
	2015년 실시	1244	70.8
	2014년 실시	227	12.9
	기타	1	.1
2016 실시시기	1학기	244	13.9
	2학기	1512	86.1
	합계	1756	100.0

나. (질적 연구) 초점집단인터뷰(FGI)

집단 인터뷰는 2회, 총 1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김해 진영중학교의 관리자 2분, 진로전담부장 선생님, 1학년 부장 선생님, 연구부장 선생님, 교육부장 선생님과 경남지역 중학교 진로전담부장 선생님 7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순	구분	직위	학교
1	A	진로전담부장	김해 j 중학교
2	B	1학년부장	김해 j 중학교
3	C	연구부장	김해 j 중학교
4	D	교육부장	김해 j 중학교
5	E	관리자	김해 j 중학교
6	F	관리자	김해 j 중학교
7	가	진로전담부장	H중학교
8	나	진로전담부장	S중학교
9	다	진로전담부장	J중학교
10	라	진로전담부장	D중학교
11	마	진로전담부장	Y중학교
12	바	진로전담부장	K중학교
13	사	진로전담부장	G중학교

3.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양적 연구) 설문 수집 및 분석 방법

1) 설문 수집

설문 수집은 온라인(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설문전문 프로그램인「서베이 몽키」를 활용하여 설문을 배포 및 수집했다. 정해진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여 답변하고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수집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설문 구성은 객관식 선택, 순위 응답 및 복수 응답, 기타 주관식 의견 등으로 구성 되었다. 설문대상은 경남 도내 전 중학교 중 자유학기제를 연구학교, 시범학교, 2016년 1학기에 경험한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기간은 2016. 7.11.(월) ~ 7.20(수), 10일간 실시했다. 설문 인원의 총 유효한 설문응답자는 3,003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은 715명, 학부모는 532명, 학생은 1,756명이 설문에 유효하게 응답했다.

2) 설문 분석 방법

분석의 도구는 IBM SPSS Statistics 20.0을 활용했고, 유의수준은 0.05으로 하여 판단·분석 했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의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여 기술했다.

나. (질적 연구) 집단 인터뷰

인터뷰 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본의 추출은 경남지역에서 2016학년도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3곳(김해진영중학교, 거창여자중학교⁵⁾, 합천대병중학교⁶⁾)의 학교 중 1학년이 8개 학급으로 남녀학생이 총 260명으로 가장 많은 김해 진영중학교를 인터뷰 학교와 인터뷰어로 선정했다. 자료의 수집은 김해 진영중학교 교사와 관리자에 사전에 전화 통화를 통해 인터뷰허락을 구한 후 전자문서로 공문을 보냈다. 그 후 2016. 09.20.(화)에 직접 김해 진영 중학교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대상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 인터뷰 내용을 모두 녹취했다. 또한 진로전담부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도 2016.12.13.(화)에 실시했다. 집단 인터뷰는 ‘열기 → 질의 및 응답 →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 3시간 내외가 소요되었다. 질의 내용은 사전에 4개 영역별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半구조화 설문의 방법을 통해 진행했다.

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녹취한 모든 내용은 전사의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전사한 모든 내용을 핵심 키워드별로 코딩하고, 코딩한 내용을 핵심 주제별로 유목화(범주화) 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및 해석했다.

5) 1학년 3개 학급 84명 학생

6) 1학년 1개 학급 27명 학생

Ⅳ. 연구 결과

1. (양적연구) 설문을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분석

가. 교원의 인식 분석

1) 자유학기제 연수

가) 연수경험 유무

연수경험의 유무는 있음이 81.9%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 자유학기제 연수경험 유무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아니요	96	18.1
네	434	81.9
합계	530	100.0

나) 연수의 종류

연수의 종류는 원격연수가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교육청 주관 출석 직무연수가 23.4%를 나타냈다.

<표 IV-2> 자유학기제 연수의 종류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원격 연수	273	63.2
교육청 주관 출석 직무 연수	101	23.4
교육청 이외 연수 기관에서 출석 직무 연수	34	7.9
기타	24	5.6
합계	432	100.0
결측값	283	
합계	715	

다) 연수의 도움 정도

연수의 도움 정도는 긍정률이 9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수의 도움 정도의 평균은 3.05(4점 척도)로 나타났다.

<표 IV-3> 연수의 도움 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2	.5
그렇지 않다	35	8.1
그렇다	273	63.2
매우 그렇다	122	28.2
합계	432	100.0
결측값	283	
합계	715	

<표 IV-4> 연수의 도움정도 분석

응답 구분	N	M	SD
연수의 도움정도	530	3.05	.556

2) 자유학기제 현황 인식

가) 추진배경과 취지

추진 배경과 취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꿈과 끼를 찾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탐색 설계’가 평균 1.99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5> 자유학기제 배경과 취지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높은 성취도에 비해 낮은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	530	2.39	1.389
학생이 흥미와 목표를 갖고 스스로 학습에 몰입하는 내재적 동기를 강화	530	2.34	1.004
꿈과 끼를 찾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탐색 설계	530	1.99	1.171
교육 패러다임을 교사 중심의 teaching에서 학생 중심의 learning으로 전환	530	3.08	1.112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530	4.52	1.038

나) 바람직한 시기

바람직한 시기는 1학년 2학기가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3학년 2학기가 13.0%로 나타났다.

〈표 IV-6〉 자유학기제 바람직한 시기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1학년 1학기	56	10.6
1학년 2학기	290	54.7
2학년 1학기	53	10.0
2학년 2학기	45	8.5
3학년 1학기	17	3.2
3학년 2학기	69	13.0
합계	530	100.0

다) 운영과정에서의 장점

운영과정에서의 장점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비전 탐색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가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학생 부담 해소 및 학교생활의 만족도 상승이 25.7%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7〉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에서의 장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진로교육 강화	84	15.8
교수 학습 방법 혁신(블록 타임을 활용한 융합, 연계 수업)	83	15.7
학생 부담 해소 및 학교생활의 만족도 상승	136	25.7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통한 초중고 교육전반의 혁신에 기여	7	1.3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비전 탐색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	206	38.9
기타	14	2.7
합계	530	100.0

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법의 장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법의 장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재량수업일 중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여 진로 탐색 기회 확대'가 평균 2.29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8> 자유학기제 편성 및 운영방법의 장점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 자율편성 운영	530	3.04	1.275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을 운영	530	3.13	1.160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기간(7일)의 자율적 운영	530	2.70	1.245
학교 재량수업일 중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여 진로 탐색 기회 확대	530	2.29	1.362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	530	3.51	1.409

마) 실시로 인한 학생들에게 우려되는 점

실시로 인한 학생들에게 우려되는 점은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의 적응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시험을 치지 않으므로 학력이 저하될 우려가 29.1%로 나타났다.

<표 IV-9>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학생들에게 우려되는 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시험을 치지 않으므로 학력이 저하될 우려	154	29.1
수업시수의 축소 및 고입 성적 미반영으로 인한 타 학기의 학습 비중 증가	47	8.9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의 적응	210	39.6
개인적 사정으로 전학 시 한 번도 하지 못할 경우와 중복 실시될 경우	48	9.1
기본 교과 수업을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운영하여 기초·기본 학력의 저하	56	10.6
기타	15	2.8
합계	530	100.0

바) 평가방법 중에 힘든 점

평가방법 중에 힘든 점은 과정 평가, 자기성찰 평가,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가의 준비 및 실시가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평가 기준 설정의 미흡이 19.4%로 나타났다.

<표 IV-10> 자유학기제 평가방법 중에 힘든 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수업 진도에 따른 형성평가	30	5.7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성찰 평가	55	10.4
평가 기준 설정의 미흡	103	19.4
고등학교 입시에 미반영하며, 시도교육청별로 고입 방법 및 기준을 수정	32	6.0
과정 평가, 자기성찰 평가,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가의 준비 및 실시	298	56.2
기타	12	2.3
합계	530	100.0

사) 바람직한 자유학기제 유형

바람직한 자유학기제 유형은 진로체험 활동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가 21.7%로 나타났다.

<표 IV-11> 바람직한 자유학기제 유형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동아리 활동	49	9.2
예술체육 활동	48	9.1
선택프로그램	79	14.9
진로체험 활동	136	25.7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115	21.7
혼합형	103	19.4
합계	530	100.0

아) 추가연수 시 필요한 유형

추가연수 시 필요한 유형은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선택프로그램이 17.7%로 나타났다.

<표 IV-12> 자유학기제 추가연수 시 필요한 유형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동아리 활동	48	9.1
예술체육 활동	35	6.6
선택프로그램	94	17.7
진로체험 활동	71	13.4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228	43.0
혼합형	54	10.2
합계	530	100.0

자)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활동중심 수업 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 능력 강화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진로체험 지역 인프라 탐색 및 적용이 20.4%로 나타났다.

〈표 IV-13〉 자유학기제 교사의 역할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통합수업 운영을 통한 교과 간의 융합	91	17.2
진로체험 지역 인프라 탐색 및 적용	108	20.4
활동중심 수업 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 능력 강화	289	54.5
진로 상담 교사와의 상호 업무의 협조	24	4.5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13	2.5
기타	5	.9
합계	530	100.0

차) 예산지원 중단 시 필요성

예산지원 중단 시 필요성은 긍정률(‘그렇다’)이 39.1%로 부정률(‘그렇지않다’) 61.0%보다 더 적었다. 따라서 만약 예산이 중단되면 자유학기제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4〉 자유학기제 예산지원 중단 시 필요성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126	23.8
그렇지 않다	197	37.2
그렇다	153	28.9
매우 그렇다	54	10.2
합계	530	100.0

카) 갖춰야 할 요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가 평균 2.96으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5〉 갖추어야 할 요건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30	3.08	1.112
학교 생활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실시 조항)(법, 제도 개정)	530	3.45	1.271
일반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530	2.96	.557
학교별 진로교사 배치 확대	530	3.67	1.317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530	3.07	1.376

타) 교원 본인의 만족도

교원 본인의 만족도는 긍정률(‘그렇다’)이 65.2%로 부정률(‘그렇지않다’) 34.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16〉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원 본인의 만족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46	8.7
그렇지 않다	138	26.0
그렇다	306	57.7
매우 그렇다	40	7.5
합계	530	100.0

3) 자유학기제로 인한 변화와 과제

가) 평가과정 개발에서의 어려움

평가과정 개발에서의 어려움은 교사들의 프로그램 개발(Co-teaching)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진로체험 지역 인프라의 부족이 27.7%로 나타났다.

〈표 IV-17〉 평가과정 개발에서의 어려움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학습 형태의 변화(단순 암기 위주→자기 주도 창의학습)에 따른 기준의 모호함	73	13.8
진로체험 지역 인프라의 부족	147	27.7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의 진로 탐색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43	8.1
교사들의 프로그램 개발(Co-teaching)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	227	42.8
동료 교사들과의 업무 분담의 모호함으로 인한 학습효과의 저해	33	6.2
기타	7	1.3
합계	530	100.0

나) 학생들의 달라진 점

학생들의 달라진 점은 학업 부담의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가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자기이해 및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이 25.1%로 나타났다.

〈표 IV-18〉 자유학기제 시행 후 학생들의 달라진 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자기이해 및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133	25.1
교우들과의 상호 존중 및 협동심 향상	58	10.9
학업 부담의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276	52.1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30	5.7
기타	33	6.2
합계	530	100.0

다) 학부모의 달라진 점

학부모의 달라진 점은 자녀의 적성에 따른 진로에 대한 이해가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감소가 22.3%로 나타났다.

〈표 IV-19〉 자유학기제 시행 후 학부모님들의 달라진 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자녀의 적성에 따른 진로에 대한 이해	228	43.0
자녀의 교우 관계에 대한 만족도 증가	43	8.1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감소	118	22.3
과도한 학업 부담의 감소	111	20.9
기타	30	5.7
합계	530	100.0

라) 본인의 달라진 점

교원 본인의 달라진 점은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대한 이해 증가가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20.8%로 나타났다.

〈표 IV-20〉 자유학기제 시행 후 교원 본인의 달라진 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운영 중 동료 교사와 학습조직의 학교 내에서 활성화	71	13.4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110	20.8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대한 이해 증가	226	42.6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 인식	97	18.3
기타	26	4.9
합계	530	100.0

마) 중장기 과제

제도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교사의 행정부담 경감 및 수업, 학생지도 중심업무 조정’이 평균 3.55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21〉 자유학기제 중장기 과제

응답 구분	N	M	SD
학부모의 호응과 적극적 참여	530	5.46	2.886
일반교사의 행정부담 경감 및 수업, 학생지도 중심업무 조정	514	3.55	2.971
학교별 진로교사 배치 확대	500	6.74	3.735
블록 타임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98	5.72	3.044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강화	488	3.60	.880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	496	5.78	2.855
지필고사위주 시험제도 폐지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479	6.23	3.217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실시 조항)	461	7.69	3.046
일반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431	6.04	3.368
진로직업체험 시설 확보	492	6.10	3.536
국영수 교과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497	8.04	3.333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485	7.26	3.791

4) 활동에 대한 교원의 만족도

[4-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및 수업]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및 수업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81.8%~91.6%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교원 만족도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나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85.2	14.8
2	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89.9	10.1
3	나는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자율성을 발휘 할 수 있었다.	90.6	9.4
4	나는 토론, 실험, 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였다.	83.9	16.1
5	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81.8	18.2
6	나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 주었다.	91.6	8.4
7	나는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할 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89.5	10.5
8	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였다.	84.3	15.7

[4-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수업참여]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분석한 결과, 긍정률이 모든 항목에서 높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공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가 긍정률이 53.9%로 다소 낮게 나오는 특성을 보였다.

<표 IV-23>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수업참여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였다.	64.0	36.0
2	학생들은 학교공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53.9	46.1
3	학생들은 학교공부가 자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69.2	30.8
4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 했다.	86.1	13.9
5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84.1	15.9
6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다.	75.8	24.2

[4-3.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4>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학교 내 교사들 간의 소통이 원활했다.	81.8	18.2
2	학교 내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충분했다.	84.6	15.4
3	학교 내 학생들 간의 관계가 원만했다.	87.7	12.3

[4-4.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운영을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내 업무량은 적절했다는 긍정률이 49.4%로 부정률 50.6%보다 더 적었다. 이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교원의 업무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항목인 동료교사와의 협력, 지역유관기관과의 협조는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5>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운영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학교에서 내 업무량은 적절했다.	49.4	50.6
2	학교에서 업무수행시 동료교사와 자주 협력했다.	81.0	19.0
3	교육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았다.	62.8	37.2

[4-5.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학생역량)]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학생역량)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6〉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학생역량)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84.7	15.3
2	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성찰하는데 도움을 줬다.	84.9	15.1
3	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이 길러졌다.	80.3	19.7
4	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88.5	11.5
5	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가 길러졌다.	85.8	14.2

[4-6.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교사역량)]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교사역량)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교사역량)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나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자신감이 있었다.	86.1	13.9
2	나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보람을 느꼈다.	85.1	14.9
3	나는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80.4	19.6
4	나는 수업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86.0	14.0
5	나는 평가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83.0	17.0

[4-7.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즐겨워했다는 긍정률이 90.4%로 나타났다.

〈표 IV-28〉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즐겨워했다	90.4	9.6
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83.7	16.3

[4-8.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생활 만족도]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률이 79.8%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9>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생활 만족도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79.8	20.2

5) 기타 의견 종합

<표 IV-30> 기타 의견 종합

순	의견 내용
1	정규직 진로전담교사 외에 비정규직 진로전담교사 필요함.
2	지금처럼 한 학기를 통째로 활용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교사들이 모든 과정을 감당 하면 예전의 CA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 됩니다. 자유학기 취지가 동아리 활동을 학생 주도적으로 하 라고 하는데 자유학기가 대부분 1학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1학년의 역량이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워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 영역은 없애고, 교과 영역에 시간을 할애하고, 예산을 전 학년에 걸쳐 투자하여 진로체험기회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3	폭넓고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4	교사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5	업무분담 필요
6	자유학기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7	선택프로그램이나 동아리수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기존 교과수업이 줄어야 하는데 교과수업은 오전에 최대한 몰아서 그대로 수업을 다하고 오후에는 선택프로그램과 동아리수업으로 이어진다. 가르치는 교과목이 다르기에 수업준비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자유학기제에 따른 추가 업무량도 더 있는데 수업시수는 육체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울 만큼 많아져 심신이 모두 고단한 상황이다. 단위 학교별로 시간 운용 방식이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기에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제발 한 사람의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8	진정한 진로 탐색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	좀 더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10	자유학기제가 확대 연계되었으면 좋겠음
11	자유학기제 폐지를 적극 권장 함
12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보급, 교육낙후지역 전문 강사배치 시급,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13	전국이 같은 학년 같은 학기에 실시해야 됨. (전학생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서)
14	학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15	예산편성이 부족하고 학교예산 없이는 추진이 힘들 듯하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모든걸 학교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16	한 학기에서 1년으로 기간을 늘렸으면 합니다
17	교육 지원청 중심의 다양한 진로 체험처 발굴
18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개발을 요구하여 무척 힘들었습니다. 2,3학년을 걸쳐서 자유학기제를 하면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순	의견 내용
19	가장 근본인 입시를 바꾸지 않고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대입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20	교사의 수업방법 개선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21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수업 및 평가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 좋았으나 다양한 평가방법의 도입으로 인해 학생부 기록을 비롯한 각종 서류작업으로 인해 업무량이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학생부 입력 및 각종 양식의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2	2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적당한 시기인 것 같다. 지역의유관기관들이더많이진로체험에협력해주었으면 좋겠다.
23	자유학기제 운영 업무 경감 위한 행정원 배치. 진로부분은진로교사가완전히맡아서할수있도록명시화
24	예산이 많을수록 좋을 듯합니다.
25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개혁이 필요하다. 학교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으로
26	우리 학교는 소규모학교라 자유학기제가 가능했지만 도시의 한 학년 당 300명 규모의 학교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교육과정임.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함.
27	그냥 자유학기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반짝이 같은 느낌. 그냥 중학교 3학년 동안 각 교과서 내용을 대폭 적으로 줄이고, 수업방식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수업이 더 낫다고 생각함.
28	소규모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인하여 수업부담이 과중되었고 블록 타임으로 인하여 일과시간이 한 곳에 집중되어 출장 시 시간표 교체가 어렵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도로 인해 부담감이 커짐
29	업무 적성성과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자세를 고취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선행되어야
30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한번 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입시제도과 평가제도, 더 나아가 취업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31	교원의 업무량 감소가 확실히 느껴지기 전까지는 이상적인 기획안일 뿐이다.
32	자유학기제 시행이 중학교 1,2학년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빠른 느낌이 든다.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1학년에 적용하는 것은 어떨 런지요?
33	교사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34	하루속히 폐지해야 함.
35	학습에 관련된 선택프로그램 내용이 많으면 좋겠다
36	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교사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시면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37	전문적인 진로 체험이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유치원생이 체험하는 딸기 따기, 도자기 그리기 같은 것을 중학생이 하고 있는 것은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전문성도 없다. 진로체험이 꼭 만들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 다양한 내용이 없고 실제 진로를 체험하고 간단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견학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시험이 없으니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체험하는 날은 오후에 방치수준이라 자유학기제가 끝난 다음 학기에는 학습수준이 엄청 떨어져서 자유학기제가 빈익 빈부익부의 계급사회를 가속화 시키고 있음
38	학교의 현장과 이론 및 취지와 안 맞는 한계를 느끼면서 선생님들은 그대로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던지 진로를 경험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느껴졌으며 학생들 수요조사에서 100%인원의 만족감 있는 반별 배치는 무리라고 느꼈습니다. 담임을 맡지 않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자유학기를 담당하면서 업무가 더욱 과중하여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발달과정을일일이과정평가를통해기록으로남겨야했기때문에학생들의활동에집중하기보단관찰을위한수업 위주로돌아가야만한게아닌가란생각이듭니다.
39	자유학기제가 주로 1학년 2학기에 실행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2학년 2학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40	진로 탐색과 체험이 한 학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은하루에도세번씩꿈이바뀝니다.학기초에적성이나흥미를조사해서그에맞는체험을준비해서체험을하러갈때면이꿈이바뀌어있습니다.아이들 스스로원하는것을원하는 때에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순	의견 내용
	학습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수학습평가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가 경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기 전과 다를 바가 없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41	업무가 과중하므로 업무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담임, 자유학기제를 같이 담당하는 것은 과중하므로 방과 후처럼 보조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42	앞으로도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43	우리나라의 여건상 자유학기제는 아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44	1. 다양한 진로를 알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 2.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의 학업저하 및 개념부족 3. 현 입시제도의 구조적 한계 4. 교사의 교과수업 다양성의 한계
45	수업과정 및 평가에 있어서 분명하면서도 간소화된 지침이 있으면 본 취지를 잘 살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46	일단학생들도 시험에서 자유롭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오히려 각종수행활동에대한부담감이증가하였고,담당교사는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와 계획을 세우는 업무가 부과되어 더욱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시골학교의경우는다지역자원이나 인프라가 빈약하여 다양한 진로체험과 주제선택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체들도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에 과연 정부에서는 지역을 고려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한 학기만으로 진로에 대한탐색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무언가 완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산이중단된다면학교규모가작은학교는실행하는데더큰어려움이발생합니다.
47	예술 체육 활동 위주면 좋겠는데, 예산부족으로 이것을 일본 교사가 담당하려하니 부담이 큼. 강사를 섭외한다 해도 타 학교와 시기가 겹치므로 우수한 강사 섭외가 힘들.
48	정말로 학생이하고싶은걸 할 수 있게끔 인프라 구축 후에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49	자유 학기제 교사들에게 너무 힘든 과정이다.
50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다양화 시급함.
51	자유학기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 같다
52	자유학기제를 하는 것보다 부가적인 업무가 너무 많다.
53	수준별 수업에 대한 고려
54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전 대입전형이 바뀌어야 된다고 봄
55	무시험으로 학교생활이 흐트러짐.
56	1. 자유학기제 관련 실용적이고 유익한 연수 프로그램 강화 2.교육부차원의자유학기제프로그램개발과범사회적인프라구축
57	선택수업이나 진로활동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자유학기제가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자유학기제 예산은 계속 지원되어야 합니다.
58	입시 제도는 그대로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단기적이고 전시적 행정으로 교사들만 힘들어요.
59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학교장과지역기관과의지원필요
60	자유학기제 동안 그전과 다르게 일반교과 수업 이외에 동아리나 예술체육활동 등 너무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해서 수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되었습니다.
61	체험처의경우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어 지방 학생들의 경우 체험활동의 제한이 많음.
62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진로 찾기, 즉 소질과 적성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건지, 교사들의 수업방법 개선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애매함.
63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됨
64	자유학기제의 궁극적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5	자유학기의 취지에 따른 교육적 효과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66	자유학기제가 더욱더 확대되어야 하고 한 학기 보다는 한 학년이 좋아 보임
67	예산 증가가 필요함

순	의견 내용
68	1회라도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69	인프라 구축과 예산지원이 절실함
70	결코 쉽지 않은 한 학기였으나, 2학년이 된 그들을 만나면 반가워하고 지난 수업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됩니다.
71	충분한 고민과 인프라 구축 없이 시행된 자유학기제라 장점보다 문제점과 미비한 점이 더 많다.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72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결과에 대한 성과보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자유학기제 관련 행정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73	진로체험처의 다양화, 체험시기 분산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나. 학부모의 인식 분석

1) 자유학기제의 이해

가) 연수경험 유무

연수경험의 유무는 있음이 28.8%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31> 학부모의 자유학기제 연수 경험 유무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네	153	28.8
아니요	379	71.2
합계	532	100.0

나) 연수의 도움 정도

연수의 도움 정도는 긍정률이 90.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32> 자유학기제 연수의 도움 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1	.6
그렇지 않다	14	9.1
그렇다	85	55.2
매우 그렇다	54	35.1
합계	154	100.0
결측값	378	-
합계	532	-

다) 제도의 이해 정도

제도의 이해 정도는 긍정률(그렇다)이 78.2%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3> 자유학기제 이행 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9	1.7
그렇지 않다	107	20.1
그렇다	318	59.8
매우 그렇다	98	18.4
합계	532	100.0

라) 제도의 만족도

제도의 만족도는 긍정률(그렇다)이 65.1%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4> 자유학기제 만족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36	6.8
그렇지 않다	150	28.2
그렇다	251	47.2
매우 그렇다	95	17.9
합계	532	100.0

2) 자유학기제 현황 인식

가) 자유학기제의 취지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꿈과 끼를 찾고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이 평균 1.74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35> 자유학기제의 취지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532	3.27	1.214
꿈과 끼를 찾고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	531	1.74	.447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 전환	532	3.25	1.003
시험에 대한 부담 해소 및 학교생활의 만족도 상승	532	1.85	.602
진로개발과 함께 학생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교육	532	2.75	1.503

나) 바람직한 시기

바람직한 시기는 1학년 2학기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학년 1학기가 30.8%로 나타났다.

〈표 IV-36〉 자유학기제 바람직한 시기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1학년 1학기	164	30.8
1학년 2학기	219	41.2
2학년 1학기	49	9.2
2학년 2학기	50	9.4
3학년 1학기	17	3.2
3학년 2학기	33	6.2
합계	532	100.0

다) 시기 선택의 이유

시기 선택의 이유는 자녀의 중학교 생활에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이 43.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하기 때문이 23.3%로 나타났다.

〈표 IV-37〉 자유학기제 시기 선택이유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자녀의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59	11.1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하기 때문	124	23.3
자녀의 중학교 생활에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	233	43.8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에 부담이 없기 때문	93	17.5
기타	23	4.3
합계	532	100.0

라)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제도로 인한 교과수업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긍정률이 55.1%로 나타났다.

〈표 IV-38〉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예	293	55.1
아니요	239	44.9
합계	532	100.0

마)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이유

교과수업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 밖에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가 평균 2.90으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표 IV-39>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이유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1자유학기제에서는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154	3.25	.640
자유학기제에서는 수업을 통해 나의 진로를 정할 수 있다.	503	5.40	3.628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 밖에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	532	2.90	1.576
자유학기제에서는 다른 과목들과 연결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	293	3.26	1.095
자유학기제에서는 이전의 교과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활동을 할 수 있다.	293	2.99	.931

바) 만족도가 높은 활동

만족도가 높은 활동은 진로관련 직업체험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관련 기관 방문이 18.6%로 나타났다.

<표 IV-40> 만족도가 높은 활동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진로관련 직업인 강의	82	15.4
진로관련 직업체험	334	62.8
진로관련 기관 방문	99	18.6
기타	17	3.2
합계	532	100.0

사) 교과수업을 통한 장점

제도를 통한 교과수업을 통한 장점은 진로탐색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21.4%로 나타났다.

<표 IV-41> 교과수업을 통한 장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수업	114	21.4
진로탐색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192	36.1
교과 시간 내 진로교육의 강화	31	5.8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 만족도 상승	79	14.8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성적에 대한 부담감 감소	105	19.7
기타	11	2.1
합계	532	100.0

아) 제도 시행 전 교과 수업의 우려 점

제도 시행 전 교과수업의 우려 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필고사 미 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가 평균 2.03으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우려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42> 제도 시행 전 교과 수업의 우려 점

응답 구분	N	M	SD
지필고사 미 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532	2.03	1.045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적응에 대한 두려움	532	2.53	1.142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담감	532	2.75	1.503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부담감	532	2.84	.771

자) 시행 후 어려웠던 점

제도 시행 후 어려웠던 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필고사 미 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가 평균 2.09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어려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43> 시행 후 어려웠던 점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담감	532	2.99	.931
지필고사 미 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532	2.09	1.014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적응에 대한 두려움	532	2.58	1.218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부담감	532	2.85	.799

3) 자유학기제의 변화와 과제

가) 학습 자료의 충분정도

학습 자료의 충분정도는 긍정률이 68.8%로 나타났다.

<표 IV-44> 학습 자료의 충분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26	4.9
그렇지 않다	140	26.3
그렇다	279	52.4
매우 그렇다	87	16.4
합계	532	100.0

나) 교과 활동의 만족도

교과 활동의 만족도는 긍정률이 71.8%로 나타났다.

<표 IV-45> 교과 활동의 만족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27	5.1
그렇지 않다	123	23.1
그렇다	283	53.2
매우 그렇다	99	18.6
합계	532	100.0

다) 교과 흥미도

교과 흥미도는 긍정률이 68.0%로 나타났다.

<표 IV-46> 교과 흥미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21	3.9
그렇지 않다	149	28.0
그렇다	265	49.8
매우 그렇다	97	18.2
합계	532	100.0

라) 수업 적응도

수업 적응도는 긍정률이 75.7%로 나타났다.

〈표 IV-47〉 수업 적응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15	2.8
그렇지 않다	114	21.4
그렇다	312	58.6
매우 그렇다	91	17.1
합계	532	100.0

마) 진로 탐색 도움 정도

진로 탐색 도움 정도의 긍정률은 70.7%로 나타났다.

〈표 IV-48〉 진로 탐색 도움 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25	4.7
그렇지 않다	131	24.6
그렇다	278	52.3
매우 그렇다	98	18.4
합계	532	100.0

바) 실력향상 도움 정도

실력향상 도움 정도의 긍정률은 57.9%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표 IV-49〉 실력향상 도움 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29	5.5
그렇지 않다	195	36.7
그렇다	232	43.6
매우 그렇다	76	14.3
합계	532	100.0

사) 평가의 객관도

평가의 객관도에 대한 긍정률은 77.1%로 나타났다.

<표 IV-50> 평가의 객관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15	2.8
그렇지 않다	107	20.1
그렇다	333	62.6
매우 그렇다	77	14.5
합계	532	100.0

아) 사교육 필요정도

사교육 필요정도에 대한 긍정률은 69.9%로 나타났다.

<표 IV-51> 사교육 필요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28	5.3
그렇지 않다	132	24.8
그렇다	265	49.8
매우 그렇다	107	20.1
합계	532	100.0

자) 사교육 실시 유무

사교육 실시 유무에 대한 긍정률은 63.9%로 나타났다.

<표 IV-52> 사교육 실시 유무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네	340	63.9
아니요	192	36.1
합계	532	100.0

차) 사교육 종류

사교육 종류는 단과(영어, 수학)학원이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종합학원이 13.6%로 나타났다.

<표 IV-53> 사교육 종류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단과(영어, 수학)학원	229	70.9
종합학원	44	13.6
인터넷 강의	20	6.2
과외수업	22	6.8
기타	8	2.5
합계	323	100.0
결측	209	-
합계	532	-

카) 시행 후 자녀의 달라진 점

시행 후 자녀의 달라진 점은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업부담의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가 32.7%로 나타났다.

<표 IV-54> 시행 후 자녀의 달라진 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191	35.9
교우들과의 상호 존중 및 협동심 향상	102	19.2
수업부담의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174	32.7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38	7.1
기타	27	5.1
합계	532	100.0

타) 시행 후 생각이 달라진 점

시행 후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자녀의 진로 적성에 대한 이해 증가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24.4%로 나타났다.

<표 IV-55> 시행 후 생각이 달라진 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학교 내 교사활동과 학습조직의 활성화	77	14.5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130	24.4
자녀의 진로 적성에 대한 이해 증가	267	50.2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 인식	38	7.1
기타	20	3.8
합계	532	100.0

파) 중장기 과제

제도에 대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별 진로교사 배치 확대’가 평균 4.11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IV-56〉 중장기 과제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학부모의 호응과 적극적 참여	532	5.15	3.233
학교별 진로교사 배치 확대	506	4.11	1.642
블록 타임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78	5.54	3.146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강화	489	6.05	2.944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	502	6.21	2.692
지필고사위주 시험제도 폐지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489	6.53	3.153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실시 조항)	490	6.92	2.881
일반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392	6.75	3.226
진로직업체험 시설 확보	493	6.16	3.710
국·영·수 교과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505	7.92	3.712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503	6.85	4.093

4)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만족도

[4-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습태도]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습태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률이 모든 항목에서 부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녀는 학교공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는 긍정률이 54.3%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률을 보였다.

〈표 IV-57〉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만족도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녀는 스스로 공부하였다.	60.6	39.4
2	자녀는 학교공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54.3	45.7
3	학교공부가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81.3	18.7
4	자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84.9	15.1
5	자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86.6	13.4

[4-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58〉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녀와 교사 간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생각했다.	86.4	13.6
2	자녀와 학교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했다.	95.6	4.4

[4-3.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진로, 관심사, 재능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는 긍정률이 9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59〉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88.6	11.4
2	자녀의 진로, 관심사, 재능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94.5	5.5
3	학교 행사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70.7	29.3
4	자녀에 대해 교사와 의사소통을 활발히 했다.	69.0	31.0

[4-4.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60〉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85.3	14.7
2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85.0	15.0
3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76.9	23.1
4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90.2	9.8
5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태도가 길러졌다.	90.2	9.8

[4-5.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교생활 행복감]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교생활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자녀는 학교생활을 즐거워했다가 9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6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생활 행복감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자녀는 학교생활을 즐거워했다	92.3	7.7
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자녀는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86.7	13.3

[4-6.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률이 82.7%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6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의 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82.7	17.3

5) 기타 학부모의 종합 의견

<표 IV-63> 기타 학부모의 종합 의견

순	의견 내용
1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욱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자유학기제 시기를 1학기로 하여 중학교 적응기를 가지면 2학년 수업에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3	지필을 쉬었다가 다시 지필을 보니 더 힘들어 하고 학교와 사회가 준비가 되지 않아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부담이 더 많다.
4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험활동이 만들어져야겠다.
5	만족합니다.
6	자유학기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인 듯 시작 전 충분히 고지한 적도 없고 교육계 탁상행정 이라봄 이거는 이거대로 다시공부하고 수능도 폐지하고 이런 식 이라면 모를까 수능의 범위는 엄청난데 집필고사위임이 존재한 이상. 자유학기제는 너무 이해불가
8	직접 활동 참여부분에서 한학기내 같은 동아리활동을 하는것이 아니라 한달 간격으로라도 다양한 경험체험을 하였으면 합니다.
9	개선필요
10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사진확보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합니다

순	의견 내용
11	다양한 프로그램 과 체험
12	학생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 진로체험처를 선택하여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대학진학과직업선택에대한다양한정보제공도필요하다고봄.(기업과 연계한 체험)
13	다양한 직종소개
14	한 학기동안 성적에 관해 아이나 부모가 마냥 자유롭지도 못했고 아이의 끼를 찾지도 못한 이도저도 아닌게 되버렸어요. 직업체험이라고 간 동네 미용실에서는 휴대폰으로 시간 때우고 오더라구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엉망이었네요. 정말로 많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냥 버리는 학기가 아닌가 싶어요.
15	카이스트대학 체험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16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선생님들의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음
17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8	짧은 시간동안 제한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 적성을 찾기란 힘든 것 같고 2학기 시험을 안보는 관계로 공부의 패턴이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 자유학기제의 참된 방향성을 잃게 되지 않았는지 ...
19	좀 더 다양한 학습과 자유학기제 연장
20	자유학기제만 실시할게 아니라 연계되어 꼭 활동할수 있는 교육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21	자유학기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인데 자기 생각 없는 아이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함. 한다면유치원이나초등학교부터자연스럽게내생각을표형하는수업을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노르웨이나유럽적교육과정시스템을더욱연구해서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일관성있는교육제도도입을바람
22	체험시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23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24	대학입시제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무의미하다고 본다. 괜히 아이들에게 혼돈만 가져온다. 다시 시험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학습태도에 악영향을 일으킨다고 본다. 허나 교육관계에는 긍정적이다.
25	의도는 좋으나 다양한 진로 체험은 한계가 있고, 아이들은 진로보단 시험 없는 자유로움에 더 비중이 큰 것 같아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26	학기제 관련 설문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러니 머리가 아프네요~ 설문조사는 학년말에 하면 더 좋을듯 싶습니다.
27	자기주도학습이 안 되는 학생에게 자유학기제도는 단지 놀이와 체험활동밖에 안 되는 것 같음.
28	자유학기제를 반대합니다.
29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을 학업에서 쉬게하고 진로를 꿈꾸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함.
30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면 1학년 1학기에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학기에 하다보니 2학년 학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31	3학년때 1년 동안 실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2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33	준비가 안된 자유학기제 학생에게 피해만 준다.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한 자유학기제 이름뿐
34	다양한 체험이 없었고 관심 있는 수업에 많은 아이가 몰리다 보니 가위바위보로 결정 되고 의사와 상관 없는 수업을 받았어요. 자유학기제 하기 전 학생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시험안친다는것에마냥공부하지않아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2학기에 실시하니 학교생활 및 중학생으로써 공부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적응된 상태에서 자유학기제를 하고 난후 다시 공부 습관 잡기가 더 힘들어요. 좋은 취지로 시작되

순	의견 내용
	었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생의 만족감은 있었지만 뭘 했는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거 같아요. 직업체험기관방문도너무단순한프로그램으로이루어져있구요. 좀 더 다양한 직업체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35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준비되지 않은 행정에 아이들이 방치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짜임새 있는 수업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는 빛을 보기 어려울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36	수박 겉핥기식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자유학기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 없는 직업체험 학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37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체험과 적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38	시험부담감은 감소하였으나 전혀 공부할하지 않고 진로 체험 장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39	학교생활은 자유롭고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줄었지만 한 학기 의 짧은 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과 학교환경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학습평가는 중간고사는 수행평가로 기말은 객관식과 단답식으로 평가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사실 서술형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고 손을 못 대는 아이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고 포기할 수 있다.
40	그냥 해아되기 때문에 하는 체험이 아닌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체험이었으면 좋겠고 다양한직업인을 초청해서 하는 강의가 유익했습니다.
41	자유학기제에 어울리는 진정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과정을 하고 있는 듯 하네요
42	준비되지 않은채 형식적으로 무작정 실시하는 자율학기제는 너무나 무의미하며 이로운 학습능력 저하의 불안감은 오히려 사교육비만 증가시키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제발!!!!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43	교육계에서 준비가 된다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44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에 매우 만족합니다.
45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은 창대할것을 믿습니다. 수고하세요.
46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체험의 종류가 많으면 좋겠고 심화되어..자유학기동안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47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합니다.
48	자유학기제 시행 전이라 9번 이후 문제(12번 제외)는 오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행후 결과에 대한 질문으로 시행 전인 학부모는 정확한 답을 체크할 수가 없어 일괄적으로 그렇다에 체크하였으므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49	직업에 관련된 외부강사 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50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51	범위가 다양하면 좋겠습니다.
52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 아이와 대화는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3	1학년1학기에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54	취지는 좋으나 진로와 관련된 수업이 가능 한 강사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55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사-전문성은 물론 의도조차 이해하고 있지 못 한-에 의해 학생의지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하는 실습이나 체험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신과 무기력을 강화해서 공교육 과 교사를 더 불신하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취지만 그럴싸하고 제대로 알지도 의지도 없는 교사퇴출이 공교육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선생이 아니라 스승을 바라는 아이들을 실험해보는 모든 시도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56	o.사전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시행된 느낌이 있음 0.학교별교육여건이나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진로, 직업 체험의 기회에 차이가 있음.

순	의견 내용
	0.학생들은 시험 없이 놀 수 있는 시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함. 0.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하는 자유학기제는 교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학생들에게는 단지 시험없는 시기로만 인식됨.
57	자유학기제...좀 더 체계적으로 ...세월이 가야할 듯...
58	자유학기제는 아이들 자기 개발 아닌 시험과 거리가 멀어져 좋아하는 것 같다. 진정 자기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아이들도 많다. 교육부에 확실한 내용으로 충분히 체험이 돌아갈 수 있게 편성했으면한다
59	한 학기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진로체험이지만...일괄적인 진로체험이 의미가 있나요?
60	지역과 연계하여 좀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61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있으면 좋겠고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지도 이외의 행정업무로 인해 학생들의 적극적인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고려해주세요
62	다양한 진로경험과 프로그램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63	간단한 지필고사는 시행했으면 합니다.
64	많은 배움과 새로운 학업에 더욱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65	충분치 못한 체험활동과 많은 인원을 수용 못해 원하지 않는 수업을 억지로 해야 하느니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66	자유학기제 하지 맙시다.
67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보편화가 되어야한다고 본다.
68	자유학기제 이후 학년에서도 한 번 더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69	1지망. 2지망으로 아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함
70	1학년1학기 자유학기제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2학년이랑 학습이 연결 될 수 있게~
71	한 학기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한 학기씩 실시하였음 합니다.

다. 학생의 인식 분석

1) 자유학기제의 이해

가) 사전교육 유무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 유무를 분석한 결과, 긍정률이 87.0%로 나타났다.

<표 IV-64> 자유학기제 사전교육 유무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네	1527	87.0
아니요	229	13.0
합계	1756	100.0

나) 사전교육의 도움 정도

사전교육의 도움 정도는 긍정률이 9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65> 사전교육의 도움 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30	2.0
그렇지 않다	105	6.9
그렇다	857	56.2
매우 그렇다	533	35.0
합계	1525	100.0
결측값	231	-
합계	1756	-

다) 제도의 이해 정도

제도의 이해 정도는 긍정률이 9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66> 제도의 이해 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25	1.4
그렇지 않다	100	5.7
그렇다	954	54.5
매우 그렇다	670	38.3
합계	1749	100.0
결측	7	-
합계	1756	-

라) 제도의 만족도

제도의 만족도는 긍정률이 86.1%로 나타났다.

<표 IV-67> 제도의 만족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81	4.6
그렇지 않다	164	9.3
그렇다	660	37.6
매우 그렇다	851	48.5
합계	1756	100.0

2) 자유학기제 현황 인식

가) 자유학기제의 취지

자유학기제 취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꿈과 끼를 찾고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이 평균 1.86으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표 IV-68〉 자유학기제의 취지 분석

응답 구분	N	M	SD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1754	2.25	1.229
꿈과 끼를 찾고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	1756	1.86	.346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 전환	1756	3.23	1.071
시험에 대한 부담 해소 및 학교생활의 만족도 상승	1756	2.67	1.303
진로개발과 함께 학생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교육	1756	3.35	1.309

나) 바람직한 시기

바람직한 시기는 1학년 2학기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학년 2학기가 22.2%로 나타났다.

〈표 IV-69〉 자유학기제의 바람직한 시기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1학년 1학기	222	12.6
1학년 2학기	676	38.5
2학년 1학기	129	7.3
2학년 2학기	389	22.2
3학년 1학기	77	4.4
3학년 2학기	263	15.0
합계	1756	100.0

다) 시기 선택의 이유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중학교 생활에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하기 때문이 25.1%로 나타났다.

<표 IV-70> 시기 선택의 이유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371	21.1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하기 때문	440	25.1
중학교 생활에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	564	32.1
고등학교 진학에 부담이 없기 때문	271	15.4
기타	110	6.3
합계	1756	100.0

라)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교과 수업의 차이를 인식하는 유무는 긍정률이 78.2%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71>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예	1373	78.2
아니요	383	21.8
합계	1756	100.0

마)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이유

교과 수업의 차이를 인식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 밖에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이 평균 2.89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표 IV-72> 교과수업의 차이 인식 이유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자유학기제에서는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1754	3.35	1.309
자유학기제에서는 수업을 통해 나의 진로를 정할 수 있다.	1754	3.75	1.912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 밖에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	1755	2.89	.900
자유학기제에서는 다른 과목들과 연결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	1372	3.58	1.068
자유학기제에서는 이전의 교과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활동을 할 수 있다.	1372	3.18	1.569

바) 실시한 진로활동 (복수응답)

실시한 진로활동은 진로관련 직업체험이 86.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진로관련 직업인 강의가 63.2%로 나타났다.

<표 IV-73>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활동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진로관련 직업인 강의	1124	63.2%
진로관련 직업체험	1531	86.1%
진로관련 기관 방문	1007	56.6%
기타	33	1.9%

사) 만족도가 높은 활동

만족도가 높은 활동은 진로관련 직업체험이 77.3%로 나타났다.

<표 IV-74> 만족도가 높은 활동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진로관련 직업인 강의	211	12.0
진로관련 직업 체험	1357	77.3
진로관련 기관 방문	188	10.7
합계	1756	100.0

아) 활동 실시 장소

활동 실시 장소는 교실이 53.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강당이 15.4%로 나타났다.

<표 IV-75> 활동 실시 장소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교실	936	53.3
운동장	58	3.3
강당	271	15.4
체육관	163	9.3
다목적실	233	13.3
기타	95	5.5
합계	1756	100.0

자) 활동 횟수

활동 횟수는 5회 이상이 49.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3회가 17.2%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학생들의 활동 횟수가 5회 이상이 49.5%이므로 5회 미만은 50.5%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체험활동 평균이 서울 9.89회, 충남 9.58회, 강원 9.16회, 대구 8.51회, 경기 8회, 전북 7회, 전남 6.96회, 부산 6.85회, 세종 6.2회, 인천 5.82회(전북도민일보 10.11자 보도자료)에 비해 적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경남지역의 인프라구축 강화와 교사별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76> 활동 횟수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1회	188	10.7
2회	211	12.0
3회	302	17.2
4회	185	10.5
5회 이상	869	49.5
기타	1	.1
합계	1756	100.0

차) 활동 장소 수

활동 장소 수는 5곳 이상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곳이 19.9%로 나타났다.

<표 IV-77> 활동 장소 수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1	237	13.5
2	273	15.5
3	350	19.9
4	228	13.0
5곳 이상	667	38.0
기타	1	.1
합계	1756	100.0

카) 교과수업을 통한 장점

제도에서 교과수업을 통한 장점은 지필고사 미 실시에 따른 성적에 대한 부담감 감소가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21.7%로 나타났다.

<표 IV-78> 교과수업을 통한 장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수업	381	21.7
진로탐색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336	19.1
교과 시간 내 진로교육의 강화	147	8.4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 만족도 상승	342	19.5
지필고사 미 실시에 따른 성적에 대한 부담감 감소	514	29.3
기타	36	2.1
합계	1756	100.0

타) 제도 시행 전 교과 수업의 우려 점

제도 시행 전 교과 수업의 우려 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필고사 미 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가 평균 2.00으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우려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79> 제도 시행 전 교과 수업의 우려 점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지필고사 미 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1755	2.00	.954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적응에 대한 두려움	1755	2.89	1.151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담감	1755	2.67	1.303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부담감	1755	2.99	1.133

파) 시행 후 어려웠던 점

시행 후 어려웠던 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담감'이 평균 1.97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어려웠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80> 시행 후 어려웠던 점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담감	1755	1.97	.539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1755	2.00	.954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적응에 대한 두려움	1755	2.99	1.133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부담감	1755	2.89	1.151

3) 자유학기제의 변화와 과제

가) 학습 자료의 충분정도

학습 자료의 충분정도의 긍정률은 87.2%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1> 자유학기제의 변화와 과제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61	3.5
그렇지 않다	164	9.3
그렇다	878	50.0
매우 그렇다	653	37.2
합계	1756	100.0

나) 교과 활동의 만족도

교과 활동의 만족도의 긍정률은 87.3%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2> 교과 활동의 만족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76	4.3
그렇지 않다	146	8.3
그렇다	827	47.1
매우 그렇다	707	40.2
합계	1756	100.0

다) 교과 흥미도

교과 흥미도는 긍정률이 87.0%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3> 교과 흥미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66	3.8
그렇지 않다	161	9.2
그렇다	822	46.8
매우 그렇다	707	40.2
합계	1756	100.0

라) 수업 적응도

수업 적응도는 긍정률이 87.0%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4> 수업 적응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57	3.2
그렇지 않다	172	9.7
그렇다	888	50.6
매우 그렇다	639	36.4
합계	1756	100.0

마) 활동의 적절도

활동의 적절 정도에 대한 긍정률은 87.9%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5> 활동의 적절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62	3.5
그렇지 않다	152	8.7
그렇다	897	51.1
매우 그렇다	645	36.8
합계	1756	100.0

바) 진로 탐색 도움 정도

진로 탐색의 도움 정도는 긍정률이 79.5%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6> 진로 탐색 도움 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126	7.2
그렇지 않다	234	13.3
그렇다	762	43.4
매우 그렇다	634	36.1
합계	1756	100.0

사) 실력향상 도움 정도

실력향상 도움 정도는 긍정률이 74.3%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7> 실력향상 도움 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131	7.5
그렇지 않다	320	18.2
그렇다	723	41.2
매우 그렇다	582	33.1
합계	1756	100.0

아) 평가의 객관도

평가의 객관도는 긍정률이 89.1%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8> 평가의 객관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51	2.9
그렇지 않다	139	7.9
그렇다	988	56.2
매우 그렇다	578	32.9
합계	1756	100.0

자) 사교육 필요정도

사교육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긍정률은 75.2%로 나타났다.

<표 IV-89> 사교육 필요정도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전혀 그렇지 않다	128	7.3
그렇지 않다	306	17.4
그렇다	801	45.6
매우 그렇다	521	29.6
합계	1756	100.0

차) 사교육 실시 유무

사교육 실시 유무에 대한 긍정률은 58.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표 IV-90> 사교육 실시 유무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네	1030	58.7
아니요	726	41.4
합계	1756	100.0

카) 사교육 종류

사교육 종류는 단과(영어, 수학)학원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종합학원이 21.9%로 나타났다.

<표 IV-91> 사교육 종류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단과(영어, 수학)학원	534	53.8
종합학원	217	21.9
인터넷 강의	103	10.4
과외수업	89	9.0
기타	50	5.0
합계	993	100.0
결측	763	-
합계	1756	-

타) 시행 후 달라진 점

제도 시행 후 달라진 점은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업부담의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가 30.0%로 나타났다.

<표 IV-92> 시행 후 달라진 점

응답 구분	빈도(N)	응답률(%)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716	40.8
교우들과의 상호 존중 및 협동심 향상	243	13.8
수업부담의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526	30.0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181	10.3
기타	90	5.1
합계	1756	100.0

파) 중장기 과제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순위는 순위평균(M)이 낮을수록 해당 응답 항목에 대한 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필고사위주 시험제도 폐지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이 평균 2.89로 가장 낮게 나와 가장 우선적인 중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IV-93〉 중장기 과제 기술통계량

응답 구분	N	M	SD
학부모의 호응과 적극적 참여	1754	4.15	2.233
블록 타임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1754	4.54	2.146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강화	1754	4.11	1.642
지필고사위주 시험제도 폐지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1754	2.89	.668
진로직업체험 시설 확보	1754	3.75	1.719
국·영·수 교과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1754	4.60	1.875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1754	4.67	2.300

4)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한 만족도

[4-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및 수업]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및 수업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가 긍정률이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94〉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및 수업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가 다양하였다.	90.1	9.9
2	수업내용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루었다	82.2	17.8
3	선생님은 토론, 실험, 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셨다.	90.2	9.8
4	수업시간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90.8	9.2
5	학교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86.6	13.4
6	선생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다	78.1	21.9
7	평가를 통해 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84.3	15.7
8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	91.8	8.2

[4-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나의 수업참여]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나의 수업참여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95〉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나의 수업참여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나는 스스로 공부하였다.	78.4	21.6
2	학교공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72.7	27.3
3	학교공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86.0	14.0
4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다.	86.1	13.9
5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89.3	10.7
6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다.	89.8	10.2

[4-3.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긍정률이 9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96〉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학교 선생님과 부담이 없이 대화를 하였다.	88.8	11.2
2	학교 선생님이 친근해지고 관계가 좋아졌다.	86.3	13.7
3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다.	93.4	6.6
4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었다	92.8	7.2

[4-4.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부정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는 수업을 통해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가 길러졌다는 긍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97〉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84.4	15.6
2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89.6	10.4
3	수업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86.8	13.2
4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90.5	9.5
5	수업을 통해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가 길러졌다.	90.5	9.5

[4-5.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교생활 행복감]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교생활 행복감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부정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이 즐거웠다가 긍정률이 94.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98>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교생활 행복감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94.1	5.9
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91.9	8.1

[4-6.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긍정률이 91.9%로 부정률 8.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99>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

순	문항내용	긍정률(%)	부정률(%)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의 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91.9	8.1

5) 기타 종합의견

〈표 IV-100〉 기타 종합의견

순	의견 내용
1	개학하고 나서는 3학년도 자유학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	예. 자유학기제에서 네일아트 프로그램, 뷰티프로그램, 만화 제작 프로그램, 예체능 프로그램 등등을 더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3	1학년 1학기 시험을 못 쳤을때 자유학기제 평가가 없어서 내신에 걱정스럽다
4	자유학기제는 충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진 후에 시행되어야한다. 소도시같은경우에는지역내에서직업체험이이루어지기매우어려우며,교과활동에대해제대로된평가가이루어지지않는것이그예시이다. 준비되지않은자유학기제를시행하는것은학생들의한학기를낭비하는일임을느꼈다
5	자유학기제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선생님들 생각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6	자유학기제를 1학년 2학기 때 하였는데 그때 수업한 것들이 하나도 기억나지않고 2학년이 되어서 공부를하고 시험을 치려니까 훨씬 힘들고 적응이 어려웠다
7	1학년2학기에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실시하기전 미리 조사를 하여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은 활동만 만들어 자기가 하고싶은 활동을 할 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싶은활동을 하지 못해서 차라리 지필고사를 치는것이 훨씬좋고 성적도 떨어지지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8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지 않았다. 그 프로그램을 듣고 싶지 않았던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서 수업이 산만해지기도 했다.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면 좋겠다.
9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 학기에서 다시 교과수업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다.
10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너무 노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11	자유롭고 좋은데 또 하기는 부담감이 든다
12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기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13	자유학기제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14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정부 지시에만 따라 기본적인 몇가지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하는지에 조금 더 주목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또 어떠한 수업에 관해 학생수가 모자라면 하기 싫은 학생들을 반강제로 그 수업을 듣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자유학기제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5	왜 한 학기만 하는지 이해 안되요.
16	굉장히 힘들니다.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엄청 싫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피곤해요. 진심입니다.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최악입니다. 이렇게 수업하면 안 돼요. 망해요.
17	자유학기제를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 맞춤 자유학기제로 만들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면 좋겠다
18	자유학기제에 과학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한 실험을 재미있게 해주시요
19	물론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시험을 치지 않아 좋았긴 하였지만 막상 2학년이 되니까 시험 보는데에 더 힘들어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했으면 좋겠지만 꿈을 찾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1학년1학기에 했으면 좋겠다.
20	이런거학생들한테전혀도움도안되고필요도없는데 높으신분들은그걸몰라요-
21	전혀 도움 안됩니다. 그냥 한학기 날리는 기본
22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순	의견 내용
23	활동이 너무 많아서 늘 과제에 시달렸다 수업마다 모둠활동을 해서 조별활동이 동시에 너무 많이 진행되서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 부모님은 일하시고 바쁜데 자꾸 부모님생각이나 참여를 유도해서 힘들었다 많은직업세계는알았지만내가원하는게뭔지는모르겠다
24	자유학기제를하되 교과수업방식은 바꾸지않았으면한다 그리고 진로탐색이 나는 자유학기제를 하는 주된 이유라고생각하는데 진로체험을 제대로했으면한다 아주 주변에서 흔히볼수있는직업부터 많이 보지못하는 희귀한직업까지 체험할 기회를주었다면 더 좋을것같다
25	2학년 3학년도 자유학기제 하자
26	재미있었고 또 하고 싶고 좀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27	재밋고꿈과끼를찾을수있어자유학기제를만드신분께감사하다는말을드리고싶다
28	더 다양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모델쪽으로)
29	단점이 없다,
30	2학년 2학기 때도 했으면 좋겠다
31	계속 자유학기제 하고싶다
32	1학기말고 2학기때 하였으면 더 좋았을꺼 같다.
33	시험을 안 쳐서 매우 좋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조 전국에 시험에 찌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34	지필평가를 아예 전반 폐지를 하여 중, 고등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 급감, 진로에 대한 결정 등 등..을 하였으면 좋겠다
35	조금더 많은 체험이 있었음 좋겠다
36	자신이 하고싶은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을 고쳐야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
37	다양한 대학교를 탐방하거나 진로캠프를 가면 좋겠다.
38	체험활동을 더욱더 다양하게하고 횟수를 늘리면 좋을 것같다
39	자유학기제 덕분에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진로를 정해야하는 3학년 때 하면 좋을 것같다
40	고등학교 때에도 자유학기제를 하고 싶다
41	재밋는 수업에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가위바위보를 해야하는게 정말 이해가 안간다. 그 꿈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하는데 재밋어서 해서 그 수업이 자기의 장래희망과 관련이 있는데 가위바위 보에 져서 못하면 짜증나고 어이없고 세상을 살기 싫을 것 같다.
42	고등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를 했으면 좋겠다.
43	더많은 종류의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돈이 많이 안들면좋겠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시면 좋겠다
44	자유학기제는 매우 재미있지만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조금 아쉬웠다.
45	2학년때도 해주세요
46	전학년 모두 자유 학기제 합시다
47	전학년이 자유학기제가 되면 좋겠다
48	자유학기제를 1학년에게만 시행하지 말고 1,2,3,학년 전체에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9	2학년이나 3학년때도 자유학기제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
50	자유학기제를 하니 2학년후 시험을 치니 자유학기제 하는동안에도 사교육을 받아야 댔었고 2학년 1 차고사때 시험성적이 뚝떨어져서 매우 힘들었다
51	자유학기제가 시험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는데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중1은 조금 빠른 거 같고 중 3이나 중2때가 적당한거 같다.

순	의견 내용
52	자유학기제는 1,2,3학년 모두 3개월씩만이라도 자유 학기제를 하면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재밌고 유쾌한 실습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53	자유학기제의 동아리 수가 적어서 하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갈 수 없고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거라서 자유학기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하고싶은 진로체험을 하지못하고 남은 동아리를 가는 것도 수업을 들으면서 흥미롭지도 않았다
54	재미없다. 하지말자.
55	우리 활천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학교의 학생들은 기존의 지필고사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난 즐겁고 유쾌하고 교과 수업으로도 못 느껴보는 협동심, 배려심을 느꼈다.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체험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진로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로 직접 오셔서 하면 학생들의 교통비 절감과 피곤함을 줄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자유 학기제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면 좋겠다.
56	조금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57	더더더더더더더많은체험을하고 싶다
58	제발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서 아이들의 시험의 부담을 줄여주시고 잠깐 휴식시간을 가질수있게 해주세요.자유학기제를 시행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선택할수있게 해주세요.자유학기제를 시작합시다!
59	1학년 2학기만 하니 아쉬웠다♥
60	더 많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합니다.
61	아이들의 장래희망에 맞춰 자유학기제가 발전되면 좋겠다. 맨처음자유학기제때는너무맘에드는것도없었고 선택지도별로없어서그냥공부부담감만줄었지 지루한건 마찬가지였다.
62	자유학기제 계속하면 좋겠다.
63	2학년1학기에 행해졌으면 좋겠다
64	자유학기제를 1학년만 하지않고 2학년,3학년도 실시했으면 좋겠다
65	중학교 2학년도 필요한거같다 3학년도 고등학교 진로 때문에 필요하다.
66	자기가 체험하고 싶은 직업을 종이에 적어서 하는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67	자유학기제 2학년 2학기때도 해주세요♥
68	안했으면
69	이런활동이매년전체학년에게실시되엇으면좋겠다
70	진로직업체험 시설 부족
71	인원수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해 주세요
72	좀 더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3	1학년이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 3학년이 해야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74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75	자유학기제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76	2,3학년도 자유학기제 했으면 좋겠어요ㅠㅠ
77	계속 했으면 좋겠다.
78	수행평가도 없었으면 한다. 좀더다양한직업을가지고조언해줄수있는사람들에게강의를들을수있는기회가많았으면한다
79	내 마음대로 체험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원수 제한 없이 했으면 한다.
80	2학년 2학기에도 자유학기제가 있으면 좋겠다.

2. (질적연구) 인터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분석

가. 【진로체험 및 특강】진로체험 및 특강의 실효화

1) 체험 시기의 조정: 체험처 ‘쏠림’ 방지 및 정체성·조기학습 습관 형성

자유학기제의 주요 역할 중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경남은 대부분 1학년 2학기에 실시한다. 따라서 진로 체험처가 한쪽으로 몰릴 수가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체험을 할 수 없거나 다른 활동으로 대체해야 할 수 있다. 오히려 1학년 1학기에 실시할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체험처를 찾기가 용이하고 외부 특강 강사를 구하기도 더 쉬운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에 몰리면 체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1학기에 하면은 그런 기회를 다 잡을 수 있겠다 해서 좋겠다싶어서 그 장점을 생각하고 1학기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연구학교로 2학기에 또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나 체험을 하고 싶거나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의뢰를 했을 때, 많은 학교가 하기 때문에. (A)

우리가 1학기니까 강사를 구하기 쉽죠. 강사를 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아마 2학기에 하는 학교에는 그런 건 아마 힘: 힘들 거예요. 그런 강점이 있죠. 거의 요일이 같기 때문에, 시간도 똑같잖아 오후에. 그러니까 정말 힘들겁니다, 우리는 1학기에 하니깐 우리가 더 마음에 드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죠 많이 지원 동아리는 강사가 거의 다고, 우리 학교 둘다 그 요위에 음악과 둘 다고 그 빼고는 거의 다가 외부강사거든요. (B)

자유학기제는 대부분 1학년에 한다. 1학기에 소수 학교, 2학기에 다수학교가 실시한다. 그러나 1학년은 아직 진로 정체성이 未형성되어 있다. 특히, 1학기에 실시하면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의 적성과 흥미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따라서 1학년에 실시하더라도 1학기 동안 진로와 직업의 수업을 들으면서 다소나마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찾도록 하고 2학기에 진로체험을 한다면 조금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체험을 하고 애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내가 이걸 왜 하지?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냥 놀러가는, 건가? 뭐야 이게? 하거든요. 1학년 1학기에 해보니까. 그게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니까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뭐...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을 듣고 어느 정도 뭐 직업군이라든지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가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데려가서 인제 하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A)

자유학기제는 1학년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학습 습관형성에 방해가 될 것으로 학교나 부모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 실시하거나 3학년에 실시하게 되면 고교 진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정체성 형성을 위해 3학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연계를 위해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때 각 1번씩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 앞에 연구희망학교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1학년 2학기에 하니까, 2학년 1학기에 애들이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학습에 이렇게 집중하는 몰입 정도가 좀 흐트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1학년 1학기에 하며는, 끝내고, 1학년 2학기부터 연이어 계속 학습 분위기를 증진시켜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차원이 있었고요. (D)

자유학기를 아이들 머리가 좀 굽어지고 사실은 부모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그렇지 3학년 1학기나 차라리 3학년 2학기에 하는 것이 그 했지 아직 1학년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좀 진로 체험을 아무리 2학기 1학기 때 진로시간에 애들 다 진로가 이렇다 저렇다 해도 아직은 아이가 어리고 자신의 고등학교 진로가 아직은 멀고 사실은 좀 어리단 생각이 들데요. 그래서 3학년 차라리 1학기쯤 되면 어차피 지가 고등학교를 가야되고 하니까 지도 머리로 굽어지고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진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

중1하고 고1 이렇게 두 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3하고 고1은 그렇고 고1을 하니까 중3은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나)

2) 지속가능한 체험처 확보: ‘안전문제’, ‘체험비’ 및 ‘가위바위보 진로체험’

진로 체험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 데 기업이나 기관은 안전문제와 업무에 방해되는 이유로 진로 체험을 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체험은 대부분 1학년 전체가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체험을 단체가 아닌 소수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견학은 가능한데, 체험은...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위험하다고 안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고. 중소기업 여기 주변에 진로하는 데 많거든요. 견학 참 많이 갔거든요, 제가예. 하니까, 해주고 싶지만 하면 좋겠지만, 위험해서 중학생들은. 날뛰는 애들 많잖아요? 남학생들은 막. 그러니까 사고 하나 생기면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모든 게 완전,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B)

자유학기제가 활성화 되면서 진로 체험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진로 체험처는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통해 영리와 사익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영리와 사익은 진로 체험비와 재료비로 나타나는데 비용이 몇 만원을 넘어가기도 한다. 또한 1회는 괜찮은데 계속적인 진로 체험비나 재료비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돈을 내야만 되는.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걸 거를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꿈길 조차도요. (A)

한 두 번은 모르겠지만 여러 번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도자기 그 접시 만들 때, 그거는 학부모가 수익적 부담을 했거든요, 그 돈이 한 개 접시 한 개 만...만 오천 원 했거든요. (B)

기본적인 진로 체험 인프라 확충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체험은 사실 비슷한데 체험처가 한정되어 있고, 체험 인원과 기회도 제한되어 있어 원하는 체험활동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체험처 확보를 위한 양적인 부분의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일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류해 진로 체험처를 배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체험처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함께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학생들은 소신있게 진로체험처를 선택하거나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애들 빵 만드는 건 애들이 선호 하니까 스물 몇 명밖에 못 가는데 애들 100명이 몰릴 수 있다아닙니까. 그럼 가위바위보해서 떨어뜨려야지 동아리 활동할 때 안 그랬습니까. (바)

저희들이 진로 체험 그거를 신청해 보면 저희가 7월달에는 보면 마산대학교를 갔는데 마산대학교 열몇 개 학과체험을 갔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학교 12학년 같이 갔는데 그게 있으니까 아이들은 또 몰리는 여학생들이니까 뷰티 쪽이라던지 뭐 마이스터라던지 좋아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다 못하고 할 수 없이 어느 반은 해주고 어느 반은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반별로 제가 학생 수를 정해서 수업시간에 몰리면 가위바위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나)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친구따라 같은데를 가고싶은 것도 하나의 친근성이 그래가지고

심지어 가위바위보를 같이 했는데 저 친구가 떨어졌다 그럼 저도 안갈건데 심지어 그래요. 여학생들이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가)

남학생도 아주 소극적인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남학생들은 되는데로 가더라고요. 남학생은 그런거 상관안해요. 소신있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런거는.(마)

3) 눈높이를 맞추는 진로특강 : ‘젊고 타지역’ 인력풀 구성 및 강의법 교육 실시

강의는 강의를 듣는 수강자가 누구냐에 따라 강의의 준비가 시작되고, 그들과의 눈높이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강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 특강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 특강은 대부분 재능기부를 통해 충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능기부를 하는 강사들은 거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진로 강사는 섭외가 쉬운 학부모인 경우도 있어 강의를 하는 스킬이나 테크닉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쉽게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젊은’ 강사 인력풀 구성과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직업 특강을 하면서, 재능 기부를 받으니까 조금 내용이라든지 그런 강의가 중학생들하고 안 맞아요. 왜냐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거든요. 그 연세,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할아버지에 가까운 그런 분들 오시니까 애들하고 안 맞죠, 공감대가. 우리는 늘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애들의 습성을. 근데 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들이 좀 못 받아들이는구나, 흡수를 못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B)

인력부분들도 사실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음..., 우리처럼 이렇게 숙달된, 애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테크닉이 좀 부족한 것 같구예. 좀 아마추어 수준이지 완전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서 했을 때 어떤 지원으로 했다면은, 뭐에서 바로 보내주는 그런 직업 체험 분이 있었어요. 직능원에서 보내주는. 우리 돈 한 개도 안 내고. 그래 직능원에서 누구를 섭외했냐면은, 서울권에 있는 젊은 직업인들이었어요. 정말 셰프도 다 3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이런 분들인데, 젊은 분들이죠. 서울말을 쓰는 서울사람이었거든요. 애들이 연예인처럼 대하더라고요. 그 분들을. 그 중에 뭐 아나운서나 리포터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 오면 애들이 사인을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A)

나. 【평가와 수업 개선】평가모형 개발과 수업 방법의 혁신화

1) 평가 모형 개발 및 사후 추수지도 모형 개발 필요

중학교에서 평가는 자유학기제도 도입으로 인해 수행평가로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자유학기제 평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수강과 미수강으로만 표기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이후인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직접적으로 수행평가가 성적이 반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문제출제, 평가와 채점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는 힘들죠. 문제 내는 것부터...채점하는 것도. 채점하는 게 다 힘들죠. 근데 매년 문제 내는 게 객관적으로 좀 쉬워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채점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죠. 특히, 중2, 중3은 얼마나 그게, 조금만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부분 점수를 다 줘야 되니까. 예, 예. 이의제기도 막 있고. (D)

자유학기제에는 그래도 그렇고, 그 기간 동안에 이의제거나 그런 건 없고 1학년은 그..., 자유학기제 하는 기간에 수강, 미수강 그런 것만 따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평가는 평가로서의, 애들도, 평가로서의... 그냥 뭐, 자기가 했다 안 했다, 그런 것만을 챙기고...그냥 성적표는 그렇지. 성적표, 성적표는 선생님이 그 다 적어주게 되어있죠. (A)

2)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과 신선함의 공존

자유학기제를 위해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좀 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핵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안에 대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구성을 위해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수업 등을 자유학기제에 맞게 평가가 없는 새로운 수업방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신선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수업 당연히 바뀌죠. 왜냐면 이제 수업 시수가 줄어드니까. 성취 기준을 이제 바꾸니까. 수업을 조금 이제 매시간 해야 돼. 두시간이나 세시간 추려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만하고. 핵심만. 그거는 인자 수업 시간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모둠 수업을 많이 하니까. (B)

배공처럼 이제 뭐 쉬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구예, 뭐, 다양하게. 애들이 잘 따라갑니까?그런 수업은 좋아하죠. 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인자 정말 시험 치기 위한 수업이 아니고. 정말 인자 해야 하는 수업이고, 내가, 아마 선생님들도 평상시 못 해봤던 수업을 한 번 해보는 거죠. (C)

3) 자유학기제 사후 연계: '학생의 인식기', 추수활동 강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진로역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직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예전보다 꿈, 비전, 적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인의 진로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유학기제 이후 학생 개개인의 진로역량을 더욱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학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진로 체험과 활동이 연속되고, 또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추수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학년들 보니까 표정이 찌들린 아이가 아니고 너무 밝아요. 발표도 너무 잘하고 애들이 너무 잘하더라구요. 애들 왜 이리 밝지 그랬거든요. 대답도 너무 잘하고 발표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

자유학기제 활동은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거 같아요. 일반 수업 할때는 별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의외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진로체험관 플러텍 대학 가서도 맨날 눈이 풀려가 있는 아도 진짜 반짝반짝하게 뭐 만들어가 성취를 해가지고 하는거 보니까 애들이 다르더라구요.(다)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진로나 자기 앞날 비전과 드림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지가 그 글자들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 더 심지어 제가 진로 수업시간에 친구가 찾아주는 나의 강점 이거를 해가지고 인제 롤링페이퍼식으로 이래 돌리면서 애 이름 앞면에 이제 제 이름, 있으면 보면 적어주잖아예. 근데 그 애들이 그 애 강점으로 적어 주는 게 자기 앞날의 비전을 많이 제시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니깐요. 진로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런 걸 생각하는구나 느꼈어요. (A)

2학기 때는 학습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독서...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거든 예. 1학기 때 지금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1학년 부장선생님도 애들한테 독서를 또 뭐, 시정적으로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게 하려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랑 연계해서 애들한테 읽지 않게 하려고 10월 중반쯤에 또 체험의 날이라고 한 날을 정해서 실시해요. (D)

다. 【교원 인식개선 및 복지】모든 교원의 진로 의식 ‘共鳴(공명)화’

1) 모든 교원의 진로의식 무장화: 학생에 대한 끊임없는 자극제와 환경 조성

현실적으로 진로전담교사가 모든 진로체험과 활동, 진로 특강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진로체험을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진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의 꿈, 끼, 비전, 적성, 흥미에 대해 생각하고 자극을 줌으로써 진로 역량을 신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진로 의식으로 정말로 문장을 많이 넣을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있는, 강하게 되어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번 애들한테 조종레 시간이나 수시로 이제 담임 선생님이니까 애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의식을 옆에서 알려주기 잠재되어 있으니까 깨워주면 이렇게 건드려주면 아 맞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 가는 거지? 갈 때마다 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의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A)

관리자의 마인드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자가 자유학기제 특히, 진로체험과 탐색에 대한 마인드가 긍정적이면 이러한 환경조성에 긍정적이나 반대로 긍정적이지 않으면 진로체험과 탐색을 위한 활동이 아이들의 학습역량형성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거나 다른 활동과 학습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체험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하면 활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개선을 위해 관리자를 직접 진로 체험처에 동행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체험 활동이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안전성을 강조하는 교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사고를 배제를 해가지고 밖으로 못나가게 하거든요. 이곳에서 그 주변에서 체험활동을 하라. 어떤 교장선생님은 어떠냐면 미용은 절대 안된다. 그런 것처럼 교장선생님들 머리 속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험을 갈다가 다양성있게 할 수가 없다는거지요. (마)

교감선생님이 애들의 선호도가 높아도 아예 못 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차를 대령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이를 간다 대한항공 간다하면 못가게 하거든요. 왜 왔다갔다 하면서 사고날 위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있는 주변에서만 하라. 어떤 교장샘 같은 경우에는 멀리러도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거기를 갔다오라는 교장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체험활동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낄수 있습니다. (다)

갈 때 교장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는 교감선생님께서 따라가셨어요. 교감선생님이 따라가시고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 좀 괜찮은 곳에 반대하시는 곳은 교장선생님 모시고 가가지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많이 다음에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사)

2) 진로교사 및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업무가중 '소진': '회복탄력성' 제고

자유학기제에서는 진로 체험과 활동, 진로 특강의 활동이 많기 때문에 진로전담교사(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전담부장) 및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나 교육 지원청으로부터 '진로' 또는 '자유학기제'라는 공문이 오면 거의 진로전담교사 또는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에게로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진로전담교사 및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는 업무 가중이 업무에 대한 피로감으로 전이되고, 결국, 소진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대적으로 큰 학교에서는 학년부장선생님, 연구부장 선생님, 교육부장 선생님과 일을 협의하거나 분배해서 하고 있으나 작은 학교나 업무 분장이 잘 되어있지 못한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업무 부담으로 가지 못하고 갈등이 심해져 오히려 교원들 간 관계가 악화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전담교사 및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소진현상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가 실질적으로 그... 진로 체험하고, 교육, 수업,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진로 체험이 많기 때문에 진로 선생님에게 더 가중됩니다. 자유학기제 때문에. 자유학기제를 맡은 학교에 따라 틀린데에, 그 교육과정부나 부분에서 자유학기제를 맡으면서, 진로교사가 속으로 진로 파트를 맡아주는 인식으로 하는 학교가 좀 많은 편이죠. 전체 운영하는 거는 저랑 이제 1학년 부장선생님이랑 하기로 되어 있지예. (A)

사실상 일이 참 많아요. 자유학기제 담당자. 뭐도 있냐면 외부강사 있다아닙니까. 매주오면 왔는가 안왔는가도 일일이 체크 해야되거든요. 이 반에 가서 강사 제자리 왔는가 왜냐하면 늦게 안올수도 있거든요. 애들이 떠들고 놀고 있지 않는가? (나)

자유학기 나이스 기능 매뉴얼이 신설되었다는 공문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건 나이스 담당자가 봐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스 담당자한테 해달라고 행정요원한테 이거는 저분한테 해주세요 했는데 조금있다가 저한테 툅겨서 다시 왔네요. 잘못하면 자유학기제 담당자와 진로교사 사이에서도 갈등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더라고요.(다)

라. 【중장기 과제】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화

1) 학습결손기에 대한 우려 해소: '학습 습관' 유지하기

대입 진학률이 90%를 넘어가는 현실에서, 중학교는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과정이고,

고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계열 고교나 그 외 특목고는 대학을 가기위한 과정일 수 있다. 이러한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인해 이러한 학력과 학습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으로는 주요 과목인 ‘국영수사과’를 대상으로 내신에 반영되는 기말고사는 치르는 것이 좋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교육청, 교육 지원청, 개별 학교가 모여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경남은 좀 지장을 좀 줄 것 같네예. 학력이 떨어진다는...왜냐면 애들은 예, 책을, 책을 많이 읽는 걸 참, 내일을 위한 대비 아납니까? 내가 오후에 시간이 있을 때 책을 좀 읽지 그러, 그러냐고 수업시간에 얘기를 하면 애들이 또 공부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단순한, 시험을 안치는데 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는 공부=시험이예요. 그러는 부모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학력 저하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B)

학원을 많이, 사교육을 많이 하죠. 대부분이...그, 자유학기제...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많이 하면... 저도 사교육 하는 거 그렇게 뭐... 반대하는 입장인 게 문제가 뭐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은...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학부모님이 가서라도 대리만족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못하니까... 학원을 보내 놓으면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럼...(A)

학부모의 의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예. 그 학부모가 개인차가 많이 있는 것 같아예. 어떤 학부모는 그런 거 정말 바람직하게 잘 되어간다. 이래 생각합니다. 아들 생각을 키워주는 거. 중요한 게 그거 아이가. 아들 생각만 크면 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D)

그런데 1차고사 2차고사를 무조건 놀아 버리니까 2학년 올라가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차 고사때 국영수과정도는 한번 정도는 알아야 되는. (라)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어느 부분에 꼭 알아야할 부분을 알고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한번정도는 치고 넘어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평가를 그런데 바로 2학년 올라가버리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같은 경우도 1학년

7) 여기에서 우려하는 학습결손은 기존에 주로 해왔던 암기식 학습방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이나 공식을 외우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도 학습이고 중학교 시기에 필요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2015개정교육과정과 정성평가를 확장하는 변화에 맞춰서 토론회나 발표 등을 잘 하는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습역량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학습에 대한 재개념화 담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학기 때 붕 떠버리거든요. 그리고 수업하기 힘들어요 시험을 안치기 때문에 거기다 애들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 생각 같아서는 1학년 2학기 2차고사 때 중요과목에 한해서는 요점 정리를 한 부분에 한해가지고 시험을 한번 친다 하면 애들도 시험을 집중도 높아질 것이고 2학년 1학기 적응하기도 안습겠습니까?. (사)

2) 상급학교 평가로의 연계: 대입평가로의 연계와 반영화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 체험이나 활동 등은 수행평가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교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고에 가는 학생들은 주로 내신 성적이나 출결 등만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자유학기제 활동이 평가되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대입은 하급학교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짓는 블랙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중학교도 대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성격이 짙을 수 있다. 결국 중학교의 활동과 평가도 대입을 위한 것이므로 대학에서의 실시하는 체험과 전공활동 등은 그 대학을 입학할 때 평가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금방 못할까. 왜냐면 아일랜드하고 영국에서 진짜 하는 자유학기제를 보며는 그 학기 자체를 쉬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인제 그걸 축소판 해가지고 지금 맨 처음에는 밖으로 나간다고 부스 설치하다가, 지금은 전부 학교로 다 보내거든요. 학교로 다 모여 있으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예요. (E)

거기는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계돼있어, 전부. 대학하고. 대학과 연계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에서 찾아가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학생의 수준을 보고 바로 그 대학에서 특례입학을 시키는 거야. 그 꿈이 실현이 되려면 실천을 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 사회 구조 상에 대학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꿈을 실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밑에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서야 되냐 하면, 대학에서 1차적으로 나서야 돼. (F)

3) ‘꿈길’의 보완: 질적 보완 및 체험처 공유시스템, 강사풀 구축

효율적인 진로체험을 위해 교육부는 ‘꿈길’이라는 진로 체험처 망을 구축했다. 꿈길이 생겨 진로체험결과에 대한 보고는 편리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초기이다 보니 진로 체험처가 많이는 등록되고 있으나 진로 체험처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진로체험처에 가서는 원하는 체험이 되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체험처 평가에 대한 공유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특강이 많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진로 특강 강사를 개별 학교마다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꿈길의 보완 기능으로 진로 특강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꿈길에서의 통합이 쉽지 않다면 우선 교육청에서 지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로 특강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산의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꿈길을 통해서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만, 해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 되게 보면에, 그렇게 오만개 다 올라와있기 때문에 실제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A)

정말 진로... 직업체험 뭐, 꿈길 이런 쪽으로만 발전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또 다른 수업 개선 쪽으로 가니까 이 엉뚱한 걸로 가버리는 것 같아요. (B)

만약에 우리가 그... 직업인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군인,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죽 해가지고 나열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학교별로 짝, 만약에 우리가 꿈길... 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다 하며는 언제 언제 탁 날짜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하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D)

꿈길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꿈길에 많은 기관, 업체, 대학 등이 등록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체험 가능한 인원 수 등이 제때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실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원수와 맞지 않아 결과 보고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길에 올라와 있으면 꿈길에 처음에 막 단체를 올리게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무지하게 올렸거든요. 저희가 문화의 전당 이런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전당 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금액은 올랐지만 아이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꿈길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실제 그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라)

숫자가 안 맞아요. 실제 신청은 메일로 받아가지고 그 메일로 받은 프로그램을 실제 신청을 했어요. 이제 막판에 체험 결과 보고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꿈길에 신청한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었고 그게 한두개가 아니라 문화의 전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천문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1학년 전체가 다 갔는데 천문대는 신청 프로그램 보면 40명 썩해서 현장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견학형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올려 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가서 체험하는걸 다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는 결과물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바)

4) 제도의 지속가능성 보충: 체험버스 공유화, 평준화가 아닌 '특성화', 연구결과 확산

자유학기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소외지역인 읍면지역은 진로 체험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미비하므로 버스 대절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학교에서 버스 대절을 할 경우 버스 대절비용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므로 버스 대절비용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학교들의 일정에 맞게 대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여겨진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만약 정권이 바뀌면 자유학기제도의 소멸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전면 실시되면서 오히려 학교 및 학생의 특성을 상실하고 평준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일 큰 게 교통편이지. 시내 있는 것 같으면은 버스타고 집결해. 어디 어디 모여라. 이래하면 괜찮은데. 여기는...시골은 차를 무조건 대절해야 해요. 전폭적인 물주가 없으면 예, 절대 자유학기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예. 저희가 학생들을 운영하는 거는 그 부분 이거든예. (A)

저는 그 한 아이를 변화시키는거 그러니까 전교 1,2등 짜리는 가만히 놔둬도 잘 가지만 그 아무것도 안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변화되는게 저는 자유학기의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는 꼭 계속 좀 이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가까운 샘들 만나면 그 이야기 하면서 이거는 정권과는 관계없이 해야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래도 아마 없어질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마)

올해 1학년 말은 샘들은 그냥 작년들 보고 말았는데 올해 학년말에 생활기록부하는거 보고 내년에는 1학년 안해야지 1학년 교과도 안할기다 이렇게 할거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자꾸 제도화된 틀로 가렸습니다 이거를 자율성을 줬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내려오거든요. 초창기에는 생기부에 안적어도 되고 특별한 애만 적으라 했던 거 같아요. (나)

학생들 간의 그것도 좀 차이가 나고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어떤 그런데, 무조건 틀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집어 넣어버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장의 발달정도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 하기에 한 과목 일주일에 한 과목 들어가는 것도 빠지고 하면 17시간도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뭘 그렇게 성장해가겠습니까. (바)

자유학기제 제도의 활성화, 연착륙 등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구결과의 파급, 전이효과, 공유, 확산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거 활동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지 그 사람들이 파급효과를 내지는 않잖습니까?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뭔가를 하지 않지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거기 누가 하는지 모르듯이. 공유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거지. (가)

지역에 저는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 자유학기교사 연구회나 이렇게 교육부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 2군데가 있는데, 그냥 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주제를 정해서 개인 연구회처럼 몇 명에서 모여서 하고 뭐 그런 이렇게 파급효과를 내진 않는 것 같아요. (사)

V. 논의 및 제언

1. 논 의

가. 진로 체험 및 특강

첫째, 진로 체험 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효율적인 진로탐색과 체험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팀을 꾸려 체험처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있지만, 학교의 인력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체험을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단시간, 단시일 내에 실시하는 경향이 커서 효과가 다소 7떨어진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1학년 1학기에 실시한 학교의 학생들은 아직 진로정체성이 미형성 되고 진로역량이 부족하여 진로체험과 탐색을 했기는 했으나 본인이 원하는 진로체험과 탐색을 했다고보다는 단체로 진행한 체험이나 놀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일부는 중학교 1학년에서의 진로 결과와 그로 인한 진로탐색 활동에 대해 너무 이르다는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형 설문에서는 1학년 2학기가 가장 바람직한 시기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철균(2014)연구와도 일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진로 체험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적절한 시기 조정과 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신재한·권민석(2015)의 연구에서는 교원은 2학년 1학기, 학생은 1학년 2학기, 학부모는 2학년 1학기를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과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1학년 2학기 위주가 아니라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진로 체험처의 몰림 현상에 대한 해소와 개별 학생들의 진로 정체성 형성 및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지속가능한 진로 체험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 경남에서 공공기관/공기업이 가장 높은 진로 체험처 등록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진로 체험이라기보다는 ‘견학’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실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기관은 진로 체험과 재료비 명목으로 학생 수준에 부담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지속적인 진로체험에 부담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눈높이를 맞추는 진로 특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 특강은 대부분 재능기부를 통해 충족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능기부를 하는 강사들은 거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진로 강사는 섭외가 쉬운 학부모인 경우도 있어 강의를 하는 스킬이나 테크닉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쉽게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젊은’ 강사 인력풀 구성과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평가 모형 개발 및 사후 추수지도 모형 개발

첫째, 자유학기제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평가는 자유학기제도 도입으로 인해 수행평가로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자유학기제 평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수강과 미수강으로만 표기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무임승차 학생이 발생하는 데 이런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이후인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직접적으로 수행평가가 성적이 반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문제출제, 평가와 채점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객관적인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교과별 평가사례의 개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평가 자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협력기반 수행평가, 과정중심 성장평가 모형, 평가 우수 사례를 연구 및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 노력과 신선함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위해 수업 시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좀 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핵심 수업을 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안에 대한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구성을 위해 배움의 공동체, 거꾸로 수업 등을 자유학기제에 맞게 평가가 없는 새로운 수업방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신선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유학기제 실시 후 진로체험 결과와 변화, 성장, 수업방법 개선 등의 과정들이 다음 학기나 학년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역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와 직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예전보다 꿈, 비전, 적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인의 진로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자유학기제 이후 학생 개개인의 진로역량을 더욱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학년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진로 체험과 활동이 연속되고, 또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추수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형

자유학기제 모형(신철균·김진숙·정광순, 2013)과 맥락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교원 인식 개선과 복지

첫째, 모든 교원의 진로의식의 무장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진로전담교사가 모든 진로체험과 활동, 진로 특강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진로체험을 위해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진로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진로인식의 성숙이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의 꿈, 끼, 비전, 적성, 흥미에 대해 생각하고 자극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관리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므로 관리자에 대한 직무 연수를 체험 연수 위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진로 체험과 탐색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진로전담부장(교사)의 업무 과부하와 소진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체험처 섭외, 진로직업 특강을 해 줄 전문가 섭외, 그 외 진로업무 기획, 총괄 등의 업무에 특히 부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대적으로 큰 학교에서는 학년부, 연구부, 교육과정부 등과 일을 협의하거나 분배해서 하고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작은 학교와 큰 학교의 모든 부서 및 교사들에게 업무상 만족도를 높이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 다수에서도 진로업무 및 자유학기제 보조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전담교사 및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소진현상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유관기관의 구체적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철균·김진숙·정광순(2013)의 ‘풀뿌리 문제의식의 상향화’, ‘자유학기제 핵심팀의 구성과 양성’과도 같은 맥락적 고민으로 여겨진다.

라. 제도에 대한 과제

첫째, 학습결손 우려에 대한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인해 이러한 학력과 학습결손을 우려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제 이후 학습 결손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에는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만 시험을 안 보는 것뿐이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수업을 오전에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유학기제만의 수업이 더해져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 같은 도구 과목은 이전에 배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다음

배울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배제하고 시험에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주요 과목인 ‘국영수사과’를 대상으로 내신에 반영되는 기말고사는 치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을 상쇄시키기 위해 교육청, 교육 지원청, 개별 학교가 모여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대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급학교 평가로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 체험이나 활동 등은 수행평가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직접적으로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교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 진학률이 국가적으로 90%에 육박하는 현실을 본다면 중학교도 대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성격이 짙을 수 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학교의 활동과 평가도 다분히 대입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의 실시하는 진로 체험과 전공활동 등은 그 대학을 입학할 때 직·간접적으로 평가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꿈길’ 사이트가 있으나 실질적인 진로체험을 위한 기관이 제한적이며, 직업특강을 해 줄 전문가 섭외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초기이다 보니 진로 체험처가 많이는 등록되고 있으나 진로 체험처에 대한 질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아 실제로 진로 체험처에 가서는 원하는 체험이 되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 체험처 평가에 대한 공유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체험처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 특강이 많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진로 특강 강사를 개별 학교마다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꿈길의 보완 기능으로 진로 특강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꿈길에서의 통합이 쉽지 않다면 우선 교육청에서 지역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로 특강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꿈길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꿈길에 많은 기관, 업체, 대학 등이 등록되어 있지만 프로그램, 체험 가능한 인원 수 등이 제때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실제 진로체험과 맞지 않아 결과 보고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 업체, 대학 등이 적시에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유학기제 예산지원이 꿈길 경우에 대한 대비와 교사연구회 결과물에 대한 확산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 제도의 활성화, 연착륙 등을 위해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를 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구결과의 파급, 전이효과, 공유, 확산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예산이 교육부에서 차후 지급되지 않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자유학기제의 진로 체험 또는 제도 자체가 계속적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의문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소외지역인 읍면지역은 진로 체험을 위한 교통 인프라가 미비하므로 버스 대절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학교에서 버스 대절을 할 경우 버스 대절비용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므로 버스 대절비용은 교육청이나 교육 지원청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학교들의 일정에 맞게 대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행정사항에 대한 경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행정적으로 보고할 사항, 과다한 안전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결과 보고서 제출, 연계학기의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많은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고 연계학기 신청도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전면 실시되면서 오히려 학교 및 학생의 특성화를 상실하고 평준화가 되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정 업무로 인해 자유학기제가 ‘고정적 틀’에 갇혀 ‘타율학기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학기제로 인한 효과도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 실시 한 학기 전 진로 정체성 형성 교육과 자유학기제를 마치고 그 다음 학기와 학년으로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방안(가칭 ‘경남형 자유학기제’: [탐색-집중-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서울교육청은 서울형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도 Post-자유학기제 중2-3학년을 대상으로 다수의 교육과정 동아리 운영, 연간 34차시의 동아리 시간 운영, 연 1회이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남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경남교육청과 직접적으로 지역 대학교와의 MOU를 체결하여 대학교의 훌륭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1회성의 진로 체험이 아니라 장기간의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 대학에서의 진로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꿈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꿈길의 신청은 개별적인

중학교가 대학하고 직접 연결해서 처리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학생 개별적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모든 학교가 대학의 양질의 진로 및 전공체험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지역 대학교와의 협약과 연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한 지역대학교의 지역 인재 조기 발굴에의 도움 및 장기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개별 학생들의 진로역량 신장, 대학의 지역에 대한 봉사기여,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에 전공체험 기회 부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이 교육부의 정책평가지표에도 반영되어 관련 예산을 재 지원받는 ‘선순환’ 구조로도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진로 직업 특강을 해 줄 전문가 인력풀 구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서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은 구성의 양과 질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직업능력개발원이나 ‘국가진로체험지원센터(가칭)’ 등을 통한 전국적인 인력풀을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청 중심의 실질적인 전문 인력풀의 구축과 갱신을 통해 이러한 국가기관에 최신의 인력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진로직업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러한 활용을 통해 원활한 학교 지원 및 진로전담교사의 섭외 업무 감소가 가능하여 업무의 피로 정도를 상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경남형 진로체험 마을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남지역에서 창원시 진해구 진해청소년수련관이 중심이 돼서 덕산 마을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체험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산 YMCA가 중심이 돼서 마산 합포구 지역 마을학교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 교육청도 2017년부터 김해 내외동을 중심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의 모든 지역이 이러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장의 제공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임파워먼트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진로체험을 위한 마을 네트워크의 자발적 구성, 확산 및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나라·최지원(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방향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제27권 제3호, 199~223쪽.
- 김달호(2015). 「사례연구를 본 자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제21권 제5호, 179~202쪽.
- 김이경·민수빈(2015).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직무부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2권 제2호, 181~203쪽.
- 김진섭·문성배(2015).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한국지구과학교육학회』, 제8권 제1호, 12~24쪽.
- 김현철(2007). 『표본의 추출과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교육부보도자료(2013,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안)』. 교육부.
- 류영철(2014).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모형 개발」. 『한국교육』, 제41권 제4호, 25~51쪽.
- (2016). 「대입전형 평가자간 신뢰도 분석 및 평가영역별 학업성취도 영향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10권 제2호, 1~38쪽.
- (2016). 「인성인재선발을 위한 인성평가모형 개발」.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9권 제1호, 303~332쪽.
- 박균열·주영호·고영종(2014).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제32권 제1호, 25~51쪽.
- 법제처(2015). 「진로교육진흥법」. 법제처 법령자료.
- 서울시교육청(2014). 「서울형 자유학기제」.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14.11.17.)
- 손희권(2013).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헌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151~180쪽.
- 송경오(2015). 「학교혁신을 위한 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의미와 중요성」. 『교육행정학연구』, 제33권 제4호, 147~174쪽.
- 송창용·장현진·김나라·김민경·윤수린·박봉남·김재호(2014). 『2014년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재한·권민석(2015). 『자유학기제의 이론과 실제』. 제주: 피엔아이시스템
- 신철균(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2015). 『자유학기제 운영 개선 방안 연구: 일반학기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황은희·김은영(2015). 「자유학기제 운영실태 분석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7~55쪽.
- 김진숙·정광순(2013).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실행과 과제」. 『제7회 청람교육포럼』.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환·임영희·권민석(2015). 「교육공동체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방안 탐색」. 『교육종합연구』, 제13권 제2호, 103~126쪽.
- 이지연(2013). 『자유학기제의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현진·이지연·윤수린·이윤진(2014).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방안』.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지서운(2016).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과 사회과 교육의 변화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후조·임유나·장소영(2013).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탐색연구」. 『한국 교육학연구』, 제19권 제2호, 33~68쪽.
- 황지연·유정애(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교사 인식 탐색」. 『한국체육과학 학회지』, 제25권 제1호, 949~962쪽.
- Grant, J. S. & Davis, L. L. (1997). "Focus on quantitative methods: Selection and use of content experts for instrument developm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20, pp.269~274.

[기타 자료]

- 경향신문(2015). 서울형 자유학기제. (2015. 12.28. 경향신문 기사)
- 에듀진(2015). 「혹사당하는 진로교사, 명퇴율 일반교사 최대 4배」.(2015.06.15. 보도자료)
- 조선일보(2014). 진로교육으로 눈을 돌려라. 2014.06.01. 기사
- 전북도민일보(2016). 현장 뿌리 못 내리는 전북 자유학기제. 2016.10.11. 기사

【 부 록 1 】

자유학기제 설문지 (교원용)

< 자유학기제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2016년 교육연구정보원 정책 연구인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경남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설문조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경남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통계법 33조)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기간: 2016. 7. 12. ~ 7.22. (10일간)

※ 회신방법: 온라인 설문 후 제출

2016년 7월 12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
정책 연구위원 : 류 영 철

◆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받은 적이 없다. (문 4로 이동)
- ② 받은 적이 있다. (문 2로 이동)

2. 어떤 종류의 연수를 받으셨나요?

- ① 원격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② 교육청 주관 출석 직무 연수를 받았다.
- ③ 교육청 이외 연수 기관에서 출석 직무 연수를 받았다.

④기타()

3. 연수를 받으셨다면, 연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 본인이 생각하는'자유학기제'의 추진 배경과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2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 2)----- >

- ① 높은 성취도에 비해 낮은 학습 흥미도와 행복지수
- ② 학생이 흥미와 목표를 갖고 스스로 학습에 몰입하는 내재적 동기를 강화
- ③ 꿈과 끼를 찾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탐색 설계
- ④ 교육 패러다임을 교사 중심의 teaching에서 학생 중심의 learning으로 전환
- ⑤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⑥기타()

5. 추진배경과 취지에 맞춰,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년 1학기 ② 1학년 2학기 ③ 2학년 1학기 ④ 2학년 2학기 ⑤ 3학년 1학기 ⑥ 3학년 2학기

6. 자유학기제의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로교육 강화 ② 교수·학습 방법 혁신(블록 타임을 활용한 융합, 연계 수업)
- ③ 학생 부담 해소 및 학교생활의 만족도 상승
- ④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통한 초·중·고 교육전반의 혁신에 기여
- 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비전 탐색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
- ⑥기타()

7.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 2)----- >

- ①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②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을 운영
- ③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기간(7일)의 자율적 운영
- ④ 학교 재량수업일 중 다양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여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⑤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
- ⑥ 기타()

8. 자유학기제의 실시에 따른 학생들에게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험을 치지 않으므로 학력이 저하될 우려
- ② 수업시수의 축소 및 고입 성적 미반영으로 인한 타 학기의 학습 비중 증가
- ③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의 적응
- ④ 개인적 사정으로 전학 시 한 번도 하지 못할 경우와 중복 실시될 경우
- ⑤ 기본 교과 수업을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운영하여 기초·기본 학력의 저하
- ⑥ 기타()

9. 자유학기제의 평가 방법 중에 힘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업 진도에 따른 형성평가
- ②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성찰 평가
- ③ 평가 기준 설정의 미흡
- ④ 고등학교 입시에 미반영하며, 시·도교육청별로 고입 방법 및 기준을 수정
- ⑤ 과정 평가, 자기성찰 평가,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가의 준비 및 실시
- ⑥ 기타()

10.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유학기제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동아리 활동 ② 예술·체육 활동 ③ 선택프로그램
- ④ 진로체험 활동 ⑤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⑥ 혼합형

11.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추가 연수가 실시된다면,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요?

- ① 동아리 활동 ② 예술·체육 활동 ③ 선택프로그램
- ④ 진로체험 활동 ⑤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⑥ 혼합형

12. 자유학기제를 통해 본인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합수업 운영을 통한 교과 간의 융합
- ② 진로체험 지역 인프라 탐색 및 적용
- ③ 활동중심 수업 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 능력 강화
- ④ 진로 상담 교사와의 상호 업무의 협조 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 ⑥ 기타()

13.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지원이 중단되도 자유학기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4. 자유학기제의 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 표기. 1순위____ 2순위____)

- ①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②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실시 조항)(법, 제도 개정)
③일반교사의 연수 - 활동중심 수업 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 능력 강화
④학교별 진로교사 배치 확대
⑤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⑥기타()

15. 자유학기제의 목표와 취지에 대해 본인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16. 자유학기제의 평가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끼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학습형태의 변화(단순암기 위주→자기주도 창의학습)에 따른 기준의 모호함
② 진로체험 지역 인프라의 부족
③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의 진로 탐색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④ 교사들의 프로그램 개발(Co-teaching)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
⑤ 동료 교사들과의 업무 분담의 모호함으로 인한 학습효과의 저해
⑥기타()

17. 자유학기제의 시행 전과 비교해서, 학생들이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기이해 및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② 교우들과의 상호 존중 및 협동심 향상
③ 학업 부담의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④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⑤기타()

18. 자유학기제의 시행 전과 비교해서, 학부모님들의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의 적성에 따른 진로에 대한 이해
- ② 자녀의 교우 관계에 대한 만족도 증가
- ③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감소
- ④ 과도한 학업 부담의 감소 ⑤기타()

19. 시행 전과 비교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생각의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운영 중 동료 교사와 학습조직의 학교 내에서 활성화
- ②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③ 학생들의 진로 . 적성에 대한 이해 증가
- ④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 인식
- ⑤기타()

20.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3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 2)----- 3)-----

- ① 학부모의 호응과 적극적 참여
- ② 일반교사의 행정부담 경감 및 수업, 학생지도 중심업무 조정
- ③ 학교별 진로교사 배치 확대
- ④ 블록 타임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강화
- ⑥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
- ⑦ 지필고사위주 시험제도 폐지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 ⑧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실시 조항)
- ⑨ 일반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 ⑩ 진로직업체험 시설 확보
- ⑪ 국.영.수 교과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 ⑫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문21~28】 다음은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해 묻는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2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및 수업]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2	나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3	나는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자율성을 발휘 할 수 있었다.				
4	나는 토론, 실험, 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였다.				
5	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6	나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 주었다.				
7	나는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할 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8	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였다.				

[2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수업참여]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였다.				
2	학생들은 학교공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3	학생들은 학교공부가 자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4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 했다.				
5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6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다.				

[23.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 내 교사들 간의 소통이 원활했다.				
2	학교 내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가 충분했다.				
3	학교 내 학생들 간의 관계가 원만했다.				

[24.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운영]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에서 내 업무량은 적절했다.				
2	학교에서 업무수행시 동료교사와 자주 협력했다.				
3	교육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았다.				

[25.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학생역량)]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	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성찰하는데 도움을 줬다.				
3	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이 길러졌다.				
4	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5	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가 길러졌다.				

[26.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교사역량)]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자신감이 있었다.				
2	나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 보람을 느꼈다.				
3	나는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4	나는 수업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5	나는 평가 계획 및 진행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27.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감]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즐거워했다				
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28.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29. 이 밖에 자유학기제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 사항 >

(해당되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3. 학 교	① 남자 중학교 ② 여자중학교 ③ 남녀공학 중학교
4. 교 과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역사 포함) ⑤ 과학 ⑥ 기술·가정 ⑦ 체육 ⑧ 음악 ⑨ 미술 ⑩ 진로 ⑪ 도덕 ⑫ 기타 ()
5. 경 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6. 직 위	① 교장 ② 교감 ③ 수석교사 ④ 부장교사 ⑤ 담임교사 ⑥ 전담교사
7. 근무지역	① 시(동) ② 읍면
8. 자유학기제	① 2016년 실시 ② 2015년 실시 ③ 2014년 실시 ④ 기타()
9. 2016년 실시 시기	① 1학기 ② 2학기
10. 지도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교과 전담 ⑤ 관리자 ⑥ 기타()
11. 학급 수	① 10학급 이하 ② 11-20학급 이하 ③ 21-30학급 이하 ④ 31학급 이상
12. 재직학교 (중복 √ 가능)	① 행복(맞이)학교 ② 두드림학교 ③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④ 일반학교 ⑤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 록 2 】

자유학기제 설문지 (학부모용)

< 자유학기제 대한 학부모의 인식 조사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2016년 교육연구정보원 정책 연구인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경남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설문조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경남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통계법 33조)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기간: 2016. 7. 12. ~ 7.22

※ 회신방법: 온라인 설문 후 제출

2016년 7월 12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
정책 연구위원 : 류 영 철

◆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자유학기제 시행 전 자유학기제에 대해 학부모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네 (문 2로 이동) ② 아니요 (문 3으로 이동)

2. 학부모 연수를 받았다면, 그 내용이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3.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 본인은 자유학기제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_____ 2)_____ >

- 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② 꿈과 끼를 찾고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
③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 전환
④ 시험에 대한 부담 해소 및 학교생활의 만족도 상승
⑤ 진로개발과 함께 학생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교육
⑥ 기타()

6.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1학년 1학기 ② 1학년 2학기 ③ 2학년 1학기
④ 2학년 2학기 ⑤ 3학년 1학기 ⑥ 3학년 2학기

7.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자녀의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② 자녀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하기 때문
③ 자녀의 중학교 생활에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
④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에 부담이 없기 때문
⑤ 기타()

8. 자녀의 자유학기제에서의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이전의 교과 수업이 다르다고 느껴졌나요?

- ① 예 (문 9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문 10번으로 이동)

9. 자녀의 자유학기제 교과활동과 자유학기 이전에 경험했던 교과활동이 다르다고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자유학기제에서는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② 자유학기제에서는 수업을 통해 나의 진로를 정할 수 있다.

- ③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 밖에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자유학기제에서는 다른 과목들과 연결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
- ⑤ 자유학기제에서는 이전의 교과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활동을 할 수 있다.
- ⑥ 기타 ()

10.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 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로관련 직업인 강의 ② 진로관련 직업체험
- ③ 진로관련 기관 방문 ④ 기타 ()

11. 자녀의 자유학기제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수업 ② 진로탐색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 ③ 교과 시간 내 진로교육의 강화
- ④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 만족도 상승
- ⑤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성적에 대한 부담감 감소 ⑥ 기타()

12.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기 전 자녀의 교과 수업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_____ 2)_____ >

- ①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담감
- ②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 ③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부담감
- ④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적응에 대한 두려움
- ⑤ 기타()

13.자유학기제에 따른 자녀의 교과 수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_____ 2)_____ >

- ①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담감 ②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 ③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부담감
- ④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적응에 대한 두려움
- ⑤ 기타()

14.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에 필요한 교구, 교재 등 학습 자료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5. 자유학기제에 따른 자녀의 교과 활동이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6. 자유학기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자녀가 교과수업에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7. 자유학기제 이후 자녀가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에 의한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8.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활동이 자녀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9.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수업이 자녀의 교과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0.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수업의 평가는 객관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1. 자유학기제로 인해 자녀의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2.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 정규 수업 외로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습니까?

① 네 (24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요 (25번 문항으로 이동)

23.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다면 어떤 종류의

사교육이었습니까?

- ① 단과(영어, 수학)학원 ② 종합학원 ③ 인터넷 강의
④ 과외수업 ⑤ 기타()

24. 자유학기제의 시행 전과 비교해서, 자녀가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② 교우들과의 상호 존중 및 협동심 향상
③ 수업부담의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④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⑤ 기타()

25. 시행 전과 비교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생각의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내 교사활동과 학습조직의 활성화
②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③ 자녀의 진로 . 적성에 대한 이해 증가
④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수업과의 연계 가능성 인식
⑤ 기타()

26.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3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 2)----- 3)-----

- ① 학부모의 호응과 적극적 참여
② 일반교사의 행정부담 경감 및 수업, 학생지도 중심업무 조정
③ 학교별 진로교사 배치 확대
④ 블록 타임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강화
⑥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
⑦ 지필고사위주 시험제도 폐지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⑧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실시 조항)
⑨ 일반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⑩ 진로직업체험 시설 확보
⑪ 국.영.수 교과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⑫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문27-32】 다음은 자유학기제 활동에 대해 묻는 항목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27.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습태도]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녀는 스스로 공부하였다.				
2	자녀는 학교공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3	학교공부가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4	자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5	자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8.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녀와 교사 간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생각했다.				
2	자녀와 학교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했다.				

[29.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녀와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2	자녀의 진로, 관심사, 재능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3	학교 행사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	자녀에 대해 교사와 의사소통을 활발히 했다.				

[30.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2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3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4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5	자녀는 학교교육을 통해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가 길러졌다.				

[3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자녀의 학교생활 행복감]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자녀는 학교생활을 즐거워했다				
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자녀는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3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의 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33. 이 밖에 자유학기제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 사항 > (해당되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본인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2. 자녀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3. 자녀 학교	① 남자 중학교 ② 여자중학교 ③ 남녀공학 중학교
4. 자녀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5. 자유학기제	① 2016년 실시 ② 2015년 실시 ③ 2014년 실시 ④ 기타()
6. 2016년 실시시기	① 1학기 ② 2학기
7. 거 주 지	① 도시(동) ② 읍면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 록 3 】

자유학기제 설문지(학생용)

< 자유학기제 대한 학생의 인식 조사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2016년 교육연구정보원 정책 연구인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경남 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설문조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경남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기간: 2016. 7. 12. ~ 7.22

※ 회신방법: 온라인 설문 후 제출

2016년 7월 12일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
정책 연구위원 : 류 영 철

◆ 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자유학기제 시행 전 자유학기제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까?

① 네 (문 2로 이동) ② 아니요 (문 3으로 이동)

2. 사전교육을 받았다면 그 내용이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3. 자유학기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4. 본인은 자유학기제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5.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 2)----- >

- 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② 꿈과 끼를 찾고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
 ③ 교사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 전환
 ④ 시험에 대한 부담 해소 및 학교생활의 만족도 상승
 ⑤ 진로개발과 함께 학생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내적동기를 유발하는 교육
 ⑥ 기타()

6.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학년 1학기 ② 1학년 2학기 ③ 2학년 1학기
 ④ 2학년 2학기 ⑤ 3학년 1학기 ⑥ 3학년 2학기

7.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② 학생들의 학습 습관 형성에 적합하기 때문
 ③ 중학교 생활에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
 ④ 고등학교 진학에 부담이 없기 때문 ⑤ 기타 ()

8. 자유학기제에서의 교과 수업과 자유학기 이전의 교과 수업이 다르다고 느껴졌나요?

- ① 예 (9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요. (10번으로 가세요.)

9. 자유학기제 교과활동과 자유학기 이전에 경험했던 교과활동이 다르다고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자유학기제에서는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 ② 자유학기제에서는 수업을 통해 나의 진로를 정할 수 있다.
- ③ 자유학기제에서는 학교 밖에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자유학기제에서는 다른 과목들과 연결된 교과활동을 할 수 있다.
- ⑤ 자유학기제에서는 이전의 교과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활동을 할 수 있다.
- ⑥ 기타 ()

10.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에서 실시된 진로관련 활동들을 모두 √해 주세요.(중복가능)

- ① 진로관련 직업인 강의 ② 진로관련 직업체험
- ③ 진로관련 기관 방문 ④ 기타 ()

11.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 활동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 ① 진로관련 직업인 강의 ② 진로관련 직업체험
- ③ 진로관련 기관 방문 ④ 기타 ()

12. 자유학기제 관련 학교 내에서 진로 활동을 주로 실시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 ① 교실 ② 운동장 ③ 강당 ④ 체육관 ⑤ 다목적실 ⑥ 기타 ()

13.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 밖에서 진로 활동을 한 횟수는 모두 몇 회인가요?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14.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 밖에서 진로 활동을 한 장소는 모두 몇 군데인가요?

- ① 1곳 ② 2곳 ③ 3곳 ④ 4곳 ⑤ 5곳 이상

15. 자유학기제의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수업 ② 진로탐색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
- ③ 교과 시간 내 진로교육의 강화 ④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 만족도 상승
- ⑤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성적에 대한 부담감 감소 ⑥ 기타()

16.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기 전 교과 수업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_____ 2)_____ >

- ①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담감 ②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 ③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부담감

④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적응에 대한 두려움

⑤ 기타()

17.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수업이 진행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 2)----- >

①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한 부담감 ② 지필고사 미실시에 따른 학력 저하

③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부담감

④ 자유학기제 이후의 학습적응에 대한 두려움

⑤ 기타()

18. 자유학기제 교과수업에 필요한 교구, 교재 등 학습 자료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9.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활동에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0. 자유학기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교과수업에 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1. 자유학기제 이후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에 의한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2.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수업 중 활동의 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3.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활동이 본인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4.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수업이 교과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5. 자유학기제에 따른 교과 수업의 평가는 객관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6. 자유학기제로 인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7.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학교 정규 수업 이외의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① 네 (28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요 (29번 문항으로 이동)

28.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사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종류의 사교육이었습니까?

① 단과(영어, 수학)학원 ② 종합학원 ③ 인터넷 강의
④ 과외수업 ⑤ 기타:()

29. 자유학기제의 시행 전과 비교해서, 본인이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업세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② 교우들과의 상호 존중 및 협동심 향상
③ 수업부담의 감소와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④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⑤ 기타()

30.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표기해 주십시오. 1)----- 2)-----

- ① 학부모의 호응과 적극적 참여
- ② 블록 타임제 수업 프로그램 개발
- ③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강화
- ④ 지필고사위주 시험제도 폐지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 ⑤ 진로직업체험 시설 확보
- ⑥ 국·영·수 교과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 ⑦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 ⑧ 기타 ()

【문31-36】 다음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3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과정 및 수업]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가 다양하였다.				
2	수업내용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루었다				
3	선생님은 토론, 실험, 실습 등 다양한 수업방법을 활용하셨다.				
4	수업시간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5	학교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6	선생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다				
7	평가를 통해 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8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다.				

[3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나의 수업참여]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스스로 공부하였다.				
2	학교공부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3	학교공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4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다.				
5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6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다.				

[33.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 선생님과 부담이 없이 대화를 하였다.				
2	학교 선생님이 친근해지고 관계가 좋아졌다.				
3	학교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다.				
4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었다				

[34.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교육결과]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2	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3	수업을 통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졌다.				
4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5	수업을 통해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가 길러졌다.				

[35.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학교생활 행복감]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이 즐거웠다				
2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생활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				

[36.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의 전반적 만족도]

순	문항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유학기제 학기 동안 학교의 지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37. 이 밖에 자유학기제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 사항 >

(해당되는 번호에 √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학 교	① 남자 중학교 ② 여자중학교 ③ 남녀공학 중학교
3. 학 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기타 ()
4. 실시 시기	① 2016년 처음 실시 ② 2015년부터 실시 ③ 2014년부터 실시 ④ 기타()
5. 2016년 실시시기	① 1학기 ② 2학기
6. 거 주 지	① 시(동) ② 읍면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6.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 연구 보고서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16년 12월 27일 인쇄

2016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황 선 준

기 획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안 태 환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 영 희

연구자

책임 연구자 책임연구원 류 영 철

공동 연구자 책임연구원 전 흥 표

발행기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641-825)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www.gerii.go.kr>

전 화: (055)269-0777

전 송: (055)269-0789

인 쇄

그라지에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http://ebook-lib.gerii.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